

지방행정연구 2024-01

따뜻한 경북교육

2024년 지방교육행정 정책공모 연구보고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교육 관련자 인식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을 중심으로-

책임 연구원

하복태

공동 연구원

박두익 권정훈 엄갑영

심동섭 김태선 임유정

정창수 이권능 이지완

강소영 이정경 금영원

박정아 성현주 이필흥

자문 위원

윤기웅 교수(안동대 행정학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학교복합시설연구팀)

CONTENTS

요 약

I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학교복합시설의 일반적 이해	13
1.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13
2.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주체의 관점)	13
3. 학교복합시설의 유형	14
4. 학교복합시설의 용도	15
제 2 절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16
1. 해외 추진 사례	16
2. 국내 추진 사례	19
3.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례	27

III 연구의 가설 · 범위 및 조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30
제 2 절 연구대상자의 범위	34
제 3 절 조사설계	34

IV 설문의 분석

제 1 절 ‘가설 1’의 질적분석 35

1. 변화하는 사회 현실 36
2. 우리사회 현실과 학교복합시설 37
3. 세계시민사회 현실과 학교복합시설 40
4.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 42

제 2 절 ‘가설 2’의 양적분석 46

1. 빈도분석 46
2. 상관분석 53
3. 분산분석 54

V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제언

제 1 절 제언 63

1. [SO 전략]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64
2. [ST 전략] 균형 잡힌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 64
3. [WO 전략]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65
4. [WT 전략]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 65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 문헌 및 부록

CONTENTS(표목차)

<표 II -1> 해외의 학교복합시설의 도입배경, 시기 및 지향점	17
<표 II -2> 일본의 유헬교실 및 폐교활용 사례의 배경과 특성 ..	18
<표 II -3> 해외 학교시설복합화 사례 분석 종합	19
<표 II -4> 연도별 운영 현황(1997 년~2020 년)	22
<표 II -5> 지역별 운영 현황(1997 년~2020 년)	22
<표 II -6> 용도별 운영 현황(1997 년~2020 년)	22
<표 II -7> 사업 재원	28
<표 II -8>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28
<표 II -9>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세부 현황	29
<표 II -10> 2024 년 학교복합시설 2 차 공모 신청 사업	29
<표 III -1> 면접 인터뷰 대상학교 목록	30
<표 III -2> 설문지 문항 구성	33
<표 III -3> 양적 연구의 범위(모집단)	34
<표 IV -1> 면접 인터뷰 선정학교 목록	35
<표 IV -2> 다문화 학생 수 현황	37
<표 IV -3> 학교복합시설의 안전관리 내용 비교	43
<표 IV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46
<표 IV -5>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46
<표 IV -6> 귀하의 직책(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47
<표 IV -7> 귀하의 현 소속 학교는 어디입니까?	47
<표 IV -8>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	47
<표 IV -9>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48
<표 IV -10>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48
<표 IV -11> 학교복합시설은 2020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는 사업이다 ..	48
<표 IV -12>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종합)	49
<표 IV -13> 우리학교는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이다	49

〈표 IV-14〉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50
〈표 IV-15〉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상생 ‘미래형 학교’로 필요한 사업이다	50
〈표 IV-16〉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50
〈표 IV-17〉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51
〈표 IV-18〉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종합)	51
〈표 IV-19〉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52
〈표 IV-20〉 학교복합시설의 교육과정 융합도	52
〈표 IV-21〉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복합화시설은?	52
〈표 IV-22〉 상관분석	54
〈표 IV-23〉 분산분석(연령별-문항 5)	55
〈표 IV-24〉 분산분석(연령별-문항 10)	55
〈표 IV-25〉 분산분석(연령별-문항 11)	55
〈표 IV-26〉 분산분석(연령별-문항 12)	56
〈표 IV-27〉 분산분석(연령별-문항 13)	56
〈표 IV-28〉 분산분석(연령별-문항 14)	56
〈표 IV-29〉 분산분석 종합(연령별)	57
〈표 IV-30〉 분산분석[직책(급)-문항 7]	57
〈표 IV-31〉 분산분석[직책(급)-문항 10]	58
〈표 IV-32〉 분산분석[직책(급)-문항 11]	58
〈표 IV-33〉 분산분석[직책(급)-문항 12]	58
〈표 IV-34〉 분산분석 종합[직책(급)별]	59
〈표 IV-35〉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 7)	60
〈표 IV-36〉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 10)	60
〈표 IV-37〉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 11)	60
〈표 IV-38〉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 12)	61
〈표 IV-39〉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 14)	61
〈표 IV-40〉 분산분석 종합(소속학교)	62
〈표 V-1〉 학교복합시설 전략	64

CONTENTS(그림목차)

〈그림 II -1〉 학교복합시설 분포	20
〈그림 II -2〉 학교복합시설의 연혁	27
〈그림 II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절차	28
〈그림 IV -1〉 최근 3 개년 경북 노인 인구	39
〈그림 IV -2〉 학교복합시설 기타의견 워드클라우드	53
〈그림 V -1〉 학교복합시설 SWOT 분석	63

(요약)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교육 관련자 인식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을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연구팀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생·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부지와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사용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 제정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추진을 3기로 나누어 보면 1기 교육청 주도 유형(1997년~2005년)을 시작으로 2기 BTL사업, 동탄신도시 유형(2006~2019)을 거쳐 3기는 생활SOC복합화(2020년~현재)로 전개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정책에 맞춰 2022년 도 조례 제정, 2024년에는 도교육청에 학교복합시설담당을 설치하였으며 2023년 7곳과 2024년 6곳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에 당선되었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정책방향중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혁신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이라 불릴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수요를 진단하여 향후 사업 진행의 방향성 내지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학교복합시설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육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연구가설1’의 검증을 위해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진행중인 경기도의 2곳(능평초, 배곧누리초)과 설계 및 기획 중인 경북의 2곳[울진고, (구)하양초 화성분교]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복합시설 정책 3기에 이른 생활SOC의 관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늘봄학교의 추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의 확대 등 사회 현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과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복합시설의 추진 등이 지역소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가설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관련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부정적이다.

‘연구가설2’의 검증을 위해 설문을 이용한 양적연구를 진행(2024. 9. 25~10. 11) 하였는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434명을 표본집단으로 삼았다. 설문은 16문항으로 독립변수(4문항), 이해도(4문항), 필요도(5문항), 교육과정 융합도(3문항)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1. 빈도분석

단위: %

문항 답변	이해도			필요도				교육과정 융합도
	5들어 본 경험	7지역소멸 대응책	8연혁 이해	10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11지역상생정책	12학교개방정책	13학생필요사업	14활용가능여부
부정답변	38.7	42.9	94.7	57.1	50	52.3	61.1	45.4
긍정답변	61.3	57.1	5.3	42.9	50	47.7	38.9	54.6
결과	긍정	긍정	부정	부정	긍정·부정	부정	부정	긍정

※ 위 표는 연구보고서 본문 <표4-11>, <표4-17>, <표4-19>를 재정리 한 내용임.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긍정답변이 높으나 필요도는 부정답변이 높았다. 또한, 교육과정 융합도는 긍정답변이 다소 높았다.

2. 상관분석

➡ 문항간 상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학교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직원일수록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상생정책이며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야한다는 경향이 높았다.

3. 분산분석

➡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령, 경력, 직책(급)별, 소속 학교의 집단 평균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 연령별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 이상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20대, 30대, 4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직책(급)별은 일반직 5급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교장·교감 집단이었으며 교사와 일반직 6급 이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교별은 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 유·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 모두가 ‘참’임을 검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언으로 이어진다.

첫째,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미래교육의 현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닌 지자체와 민간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상생하며 만들어 갈 때 완전해진다.

둘째, 균형 잡힌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사업 추진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큰 두 축을 완성해 가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업 추진이 학교복합시설을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CPTED)¹⁾ 적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교직원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학교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인식을 함께 고민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위기가 닥쳐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그 어떤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연구 보고서가 검증을 통해 살펴본 사회 현실과 교직원들의 인식을 참고하여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데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학교복합시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SWOT분석

1)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으로 직역되며 도시설계와 범죄학의 협업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공간과 인간이 범죄행동에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설계에서부터 범죄 발생원인을 차단하는 방식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2023년 9월에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전국 17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돼 국비 569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부 공모사업에 전국 총 39개 사업 중 경북은 △포항 1개 △김천 1개 △구미 2개 △경산 1개 △영양 1개 △울릉 1개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출처: 시사포커스(2023. 9. 15.)]

2023년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를 첫출발로 시작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오래된 사업이다.

수도권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역 인구의 증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생활문화 공간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개정(2000년 1월 28일)되고 동법 시행령(2000년 10월 18일)에 기타시설을 정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이후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다변화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져 학생 돌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 학교복합시설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 및 시설 준공 후의 운영방식의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2020년 「학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이하,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되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게 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법을 근거로 2022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에 교육부 공모에 참가하여 7개 학교가 당선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에는 도교육청 시설과에 학교복합시설담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등장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다소 뒤늦게 시작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세계표준을 지향하고 있는 경북교육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타시도에 비해 많은 수의 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선순환의 영향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면 향후 규모의 축소 내지는 폐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면 정책을 이해하는 교육관련자 다시 말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학부모 등이 본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학교복합시설의 일반적 이해

1.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2023. 6.)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의 시설물과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소멸 우려가 증가하여 이를 극복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크게 세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초등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출생 대응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시간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기로 한다.

둘째, 중·고·대학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다. 심화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사업 범위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셋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의 참여유도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위와 같이 현재의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와 추진 방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정책 초기 시설 복합화의 정의를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 안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정책으로 정의(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집, 2004)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20년 이상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소멸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의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주체의 관점)

가. 학교 및 교육청의 입장

- 1) 학교에 없는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교내에 확보할 수 있다.

- 2)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미디어 랩, 헬스, 스튜디오, 다목적실 등 새로운 공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 생활SOC는 생활권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위치에 적정 규모의 비어있는 땅이 없거나 토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여유부지가 있는 학교용지의 지상 및 지하공간 이용할 수 있다.
- 2) 도심지역 등 일부 학교의 경우 저출생 및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잉여교실 등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여 학교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할 수 있다.
- 3)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토지, 건물, 분야별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지역 주민의 입장

- 1) 주거지에 인접한 학교시설에 생활SOC가 복합화되어 있으면 복합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등 세대 간 교류 가능하게 된다.
- 2) 생활SOC 확충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제시 또는 이행수단이 용이하다.

3. 학교복합시설의 유형

학교복합시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복합화 내용에 따른 유형과 배치에 따른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복합화 내용에 따른 유형

- 1) 물리적 복합화: 학교의 동일 부지 또는 동일 건물 내에 다양한 생활SOC를 함께 설치하여 토지와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 2) 시간적 복합화: 학생과 주민의 이용 시간대를 분리하여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복합시설 기반의 각종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또는 결합도 가능
- 3) 재정적 복합화: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원으로 공동 투자

나. 복합시설 배치에 따른 유형

- 1) 수평적 복합화: 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별동으로 배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출입구를 구분하고 건물 구조에 따라 연결 복도를 설치하여 학생의 별동 이용 시 편의 제공
- 2) 수직적 복합화: 대지의 고저차 및 도로와의 관계와 평면 형태에 따라 현관, 로비, 엘리베이터 등 수직적 동선을 고려하여 건물의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하여 학교시설과 복합시설 배치
- 3) 입체적 복합화: 수평적·수직적 복합화가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학생과 주민의 사용 시간 및 공간 위치를 고려한 동선의 분리와 필요시 제한적 연결이 중요

4. 학교복합시설 용도

가.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 1)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공공 도서관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세미나실 등과 같이 설치해서 지역의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이 함께 이용
- 2) 지역 공공 도서관의 분원 형태로 운영

나. 체육·스포츠 시설

- 1) 연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학교와 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시간을 달리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이용 불편 최소화
- 2)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스포츠 시설 종류별 전문성이 높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다. 보육 및 노인 복지시설

- 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서비스확대, 노인의 평생교육 및 여가에 대한 대응 필요
- 2) 실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

라. 지하 주차장과 지상 생태공원 조성

- 1) 주·야, 주중·주말 등 학교와 지역 주민의 이용 시간 차이에 의한 주차장 활용

2) 학교의 지상 주차 공간을 생태 공원화하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 이용

마. 직업학교, 특성과 고등학교의 산·학 연계시설

- 1) 산·학 연계를 통한 교내 실험실습실 첨단화·다양화, 스타트업 시설
- 2) 학교 특성에 맞는 산업체 유치로 교육의 시너지 효과 증대

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입체적 복합시설

- 1) 공원과 학교 등 법적·사회적 충돌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 설치
- 2) 부지의 고저차,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 구분 등을 통한 입체적 복합 사용

제2절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1. 해외 추진사례

학교복합시설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최초로 학교복합시설을 도입한 국가를 가리키는 힘이 든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설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은 전개되었다. 그중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먼저 겪고 있어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었다.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은 다양한 시점에서 학교를 활용하고 동선의 단축과 기동성을 향상시킨 점, 시설 기능의 향상과 정비가 신속하고 활동범위가 확대가능한 점이다.

북유럽 핀란드도 학교복합시설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 자원 활용, 학습 경험 제공, 사회적 통합 강화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더욱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교육환경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문헌검토하여 정리하였다.

<표 II-1> 해외의 학교복합시설의 도입배경, 시기 및 지향점(오해진, 이재림: 2009)

시행 국가	시기 및 해당학교	도입배경 . 교육제도	지향점
일본	1990년~ 학교건축의 복합화 연구 본격화됨. 1998년 신축 하카타 초등학교 2005년 증축 이치가와시 시립중학교	저출산, 고령화 증가. 학교건축 표준화로 197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공간 반영 영국의 학교건축영향, 미국의 열린 교육 영향 받음	*교육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공간의 구성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 *학교시설 고기능화, 다기능화
독일	가다머플라츠 초등학교	대부분 공립학교로 구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학교 시설이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 안됨.	*커뮤니티 기반 유형 커뮤니티센터(체육관, 어린이집, 공공카페, 홀)
스웨덴	1999년 개축 푸투름 학교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1999년 낡은 학교를 개조함.	*여러 연령대 통합학교 모습, 평생교육 추구 이다. 6세부터 16세까지(우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특수아들도 일반학급에 편제되어 통합교육 운영
미국	1971년부터 운영 맥코넬 초등학교 2005년 개교 뱀춘 지역 사회학교	오픈스쿨(열린교육)추진. 지역 주민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 노후학교들이 많아 시설적 정비, 재개발의 필요성 제기	*커뮤니티 연계 및 재생. 자기주도 학습에 최적화된 공간구성 유형
싱가포르	2000년 초부터 운영 푼골초등학교	엘리트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 제도 추구	*교육의 효율을 중시하는 공간구성
영국	1974년 신축후 증축, 스텐튼버리 캠퍼스 학교 1978, 포트힐 커뮤니티 학교 1979년 운영 씨튼센터	비형식교육, 1930년대 이후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한다는 움직임. 1976년 평생교육법 성립,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 활용도 증가 민간투자사업(PEL) 도입	*커뮤니티 연계 추구

다음 표는 일본 사례로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사례의 배경과 특성, 지역사회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학교복합시설 이전의 공간재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교실과 폐교 활용을 조사하였다.

<표 II-2> 일본의 유휴교실 및 폐교활용 사례의 배경과 특성(이재림, 2020)

학교명	배경	유휴시설 운영특성	유휴시설 활용 지역사회 효과
오구라초	학급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 발생	지자체의 민간위탁	지역사회 내 노인주간보호서비스, 평생교육
미나미중학교 (2001.9 설립결정)	학급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 발생	지자체의 민간위탁	지역의 아동탁아시설 수요 충족
호타초 (2015. 리모델링)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로 폐교.	전문민간기업 운영 및 주민투자 참여, 정부, 지자체 보조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농산물 판매, 연간 80만명 이용
이리카네 소학교	외곽 석탄생산지역, 학생수 감소로 폐교.	비영리기업 참여시 재정 보조, 수익금활용	음악 및 영상관련 산업운영
히가시카와초	학교재배치로 폐교	지자체 직접운영, 재정후자발생	지역중심 도서관을 통한 주민교류, 국제교류관 운영
모노즈쿠리초	학급수 감소로 폐교	민간기획사 독립채산, 공익목적 운영, 구 지원	제조사업자에게 사무실과 창업 지원, 카페, 지역 편의시설 등 운영
도쿄장난감 박물관	구도심, 학급수 감소로 폐교.	민간제안 장난감미술관 운영, 자체운영	가족단위 휴식공간 기능과 운영에 졸업생 참여
다이묘초	학급수 감소로 폐교.	민간기획회사 운영, 공익목적 운영	사무지원 공간(카페, 바, 텀룸) 제공, 지역주민창업기회(세무사, 변호사 상담 등) 확장

학교복합시설의 도입 시기가 각 나라마다 다르며 그 유형과 기능면도 대부분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은 해외사례를 이용자 행위를 기반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용자의 행위중심 분류는 다른 공공시설 복합화와 다른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때의 집단 행위의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소민, 2019)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선정된 사례 12가지는 개축 기획 당시부터 복합화를 염두로 계획·시공된 사례이다. 이 논문은 복합시설의 공간적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건축학과 논문이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학교 건물에 새로운 성격을 담은 건축물이 합쳐지는 한국의 학교복합시설과는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공간의 분석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운용방향에서 시사점을 얻는 데 의의가 있다. 아래 표는 사례 학교 12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3〉 해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분석 종합(이소민, 2019)

유형	선정 학교시설	국가	학교급	신축/ 리모델링 시기	시설규모	복합화 시설프로그램
교류·활동· 복합화	크레스트우드 커뮤니티 학교	영국	중등학교	1982년 신축	지상 2층	교류홀, 식당, 카페, 평생교육시설 등
	조지아 커뮤니티 학교	미국	초등+유치원	1976년 신축	지상4층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보건소, 식당, 주차장, 체육관 등
	일드 낭뜨 고등학교	프랑스	고등학교 15~20세이상 학생대상	2014년 신축	지상3층 지하1층	스포츠센터, 교육클래스, 음악당, 카페테리아
생활· 노동· 복합화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2006년 신축	지상 2층	지역행정시설, 평생교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탁아소
	스텐튼버리 캠퍼스 학교	영국	중고등학교	1974년 신축 후 증축		기숙사, 평생교육센터, 극장, 정보센터, 레저 센터, 상점 등
	시나가와 초중등학교	일본	초등학교·중학교	2006년 신축	지상 6층 지하2층	경기장, 레크레이션 룸, 트레이닝 룸, 수영장, 운동장 등
공공· 복지· 복합화	하카타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1998년 신축	지상5층지 하1층	강당, 체육관, 연수실, 지역단체실, 특별교실 등
	이치가와시 시립 중학교	일본	중학교	2005년 증축	지상 6층 지하1층	집회시설, 보육소, 노인복지시설, 케어하우스 등
	하루미 중학교	일본	중학교	1993년 신축	지상 6층 지하1층	노인시설(양로원, 주간보호소), 보육원, 주차장 등
평생 교육· 복합화	시키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2003년 신축	지상 4층 지하2층	레크레이션 센터, 평생교육시설, 극장, 스포츠센터
	노스햄튼 아카데미 학교	영국	중학교, 직업교육학교	2005년 신축	지상 3층	직업학교, 체육관, 스포츠센터
	푸투룸 학교	스웨덴	유·초·중학교	1999년 개축	지상3층	각 학교급별 통합시설

2. 국내 추진사례

국내의 경우는 최초 2001년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진행되어 금호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었다. 운영하는 시설로는 체육관, 수영장, 문화교실, 정보도서관, 지하주차장이다. 최초 언론은 학교복합시설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시설 증개축 사업의 방침이나 추진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로 다수의 문제점을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확대로 이어져 보다 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위해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추진사례를 법 제정 전과 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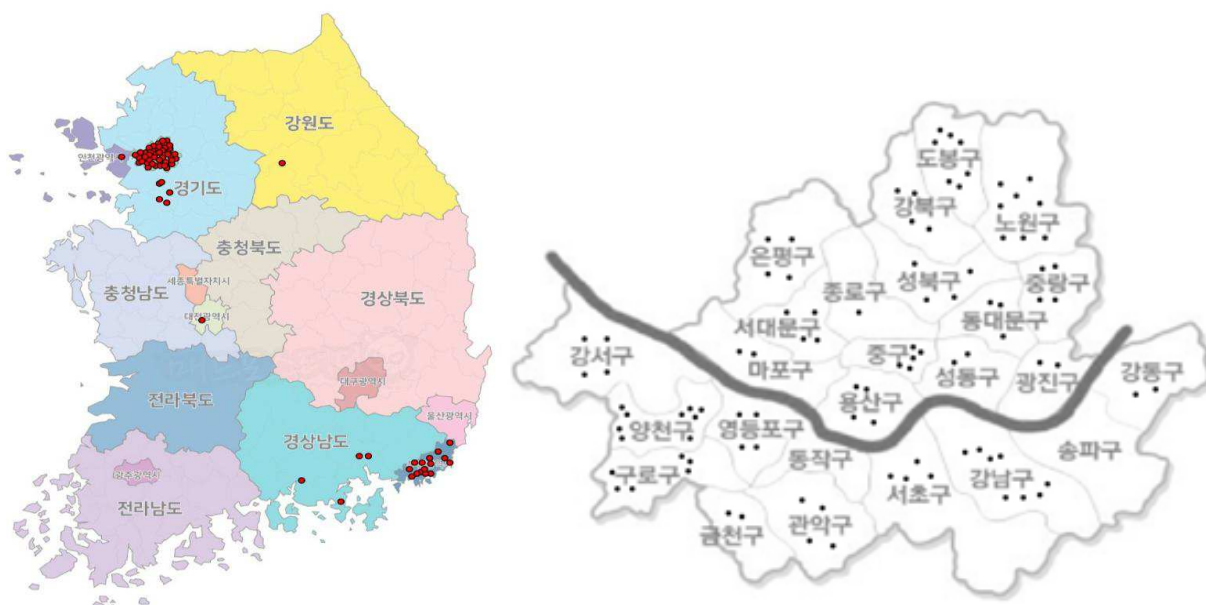
가. 학교복합시설법 제정 전 국내 추진현황

1) 제1기 교육청 주도형 (1997년~ 2005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초등학교 개축사업 시행 시 적용된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 개관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교육청은 주로 실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급식시설 등 학교에 꼭 필요하나 재정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시설을, 지자체에서는 지하 주차장, 어린이집 등 주민에게 긴요한 시설이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비싸므로 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로 서울, 부산, 경기도 일부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업이 완료된 학교의 80% 이상이 서울에 있는데 이는 지하 주차장 등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토지 가격이 비싸데 기인한다.



[그림 II-1] 학교복합시설 분포

*출처: 교육부(2019. 6),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복합화 개선방안 발취

2) 제2기 기획재정부 주도 BTL 사업형 (2006년~ 2008년)

2006년부터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에 긴요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소요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적용

하면서 학교시설의 신·개축 및 체육관 증축사업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BTL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학교에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BTL 주무 부처인 당시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 문체부 등 각 기반시설의 소관 부처를 망라하여 범정부 BTL 사업추진 TF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의 발굴 및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시설 복합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아래 두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율 20% 추가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복합화 사업 추진 유인하였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신설 (2007. 5. 2.)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 제10호신설 (2008. 5. 1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설치된 학교가 10개 학교 수준에 그쳐 정부의 범부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미미하였고 2009년부터 학교시설 BTL 사업의 수요가 대폭 줄고 기획예산처의 조직개편 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3) 동탄신도시(2010~2020)

가) 1차 시도(2010~20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및 건축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공원을 복합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 용지에 학교시설을 건축하여 학교용지 규모를 줄이고 체육장은 공원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국토부, 경기도

및 화성시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학생안전을 우려한 화성시 지역 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나) 2차 시행(2012~2020): 공원과 학교시설의 복합설치를 위한 화성시의 연구 용역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탄 II 사업지역의 권역별 8개 학교에서 학교용지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 및 복지시설을 화성시의 부담으로 건축하고 그 대신 학교용지 축소에 대한 보상으로 공원용지에 학교 체육장을 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이음터)을 추진하였다.

5) 운영 현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현황을 연도별, 지역별, 용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연도별 운영 현황 (1997년~ 2020년)

연도별	1997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합계
학교수	42개	57개	37개	33개	169개

〈표 II-5〉 지역별 운영 현황 (1997년~ 2020년)

지역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세종대 대구광주	전북전남 제주강원	합계
학교수	100개	37개	17개	4개	6개	5개	169개

〈표 II-6〉 용도별 운영 현황 (1997년~ 2020년)

용도별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문화시설	★복합시설	합계
학교수	55개	25개	9개	7개	4개	69개	169개

★복합시설: 2개 이상의 용도가 합쳐진 시설(ex, 수영장+체육관+도서관+주차장)

나. 「학교복합시설법」 제정의 요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학교복합시설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7월 법률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로써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의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복합시설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단일 법률이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협약에 의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 1) 운영 주체의 불명확: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서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운영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불명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의 주체와 책무의 명확화 필요하게 되었다.
- 3) 학교복합시설 법제정 과정의 쟁점
 - 시설 이용 및 관리: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권한, 운영 주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
 - 재정 지원 방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이 쟁점
 - 안전 및 보안 문제: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시설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지역 간 형평성: 학교복합시설 조성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

4) 학교복합시설 법제정 관련 이해관계자

- 학생: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다.
- 학부모: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이해관계가 있다.
- 지역주민: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을 주도하고 지원
-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재정을 지원
-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법제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

다. 학교복합시설법 제정(2020년) 이후

1) 제3기 생활SOC 복합화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형 (2020년~ 현재)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였다. 하지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 그쳐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생활SOC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 수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협력모델을 표준화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복합화 촉진

- (기획단계) 복합화 사업 초기 단계에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시설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다자간 협약서(MOU) 체결 후 사업 진행
- (공급단계) 설계 시 일반 이용자와 학생 간 전용 출입구, 이동통로 등 동선 분리 및 건설 기간에 통학로 안전 확보
- (운영 단계) 복합시설의 소유·운영·관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2) 시사점

지난 20여 년간 복합화 사업 추진 결과 전체 초중고의 1% 수준인 120여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필요하게 하였으며, 복합화 사업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MOU 체결 이후에도 소유권·운영권 갈등으로 중도에 사업 포기하는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하게 하였고, 복합화 추진성과, 사례, 관련 규정, Q&A 등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포털 서비스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

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발굴, 설계, 시공 및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교시설 복합화 전문기관 설치·운영하기에 이른다.

3) 대두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가)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복합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공간과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맞춤형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용자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학교복합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시설 임대료, 프로그램 수강료, 기부금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 운영 인력 등 지출 관리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주민 참여와 소통 강화: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하고 향유하는 공간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가)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

런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나) 학교-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복합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다)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정부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신 트렌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복합시설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전국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정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관리, 프로그램 기획, 재정 운영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II -2> 학교복합시설 연혁

*출처: 학교복합시설활성화 방안안내 ppt자료 발췌, 교육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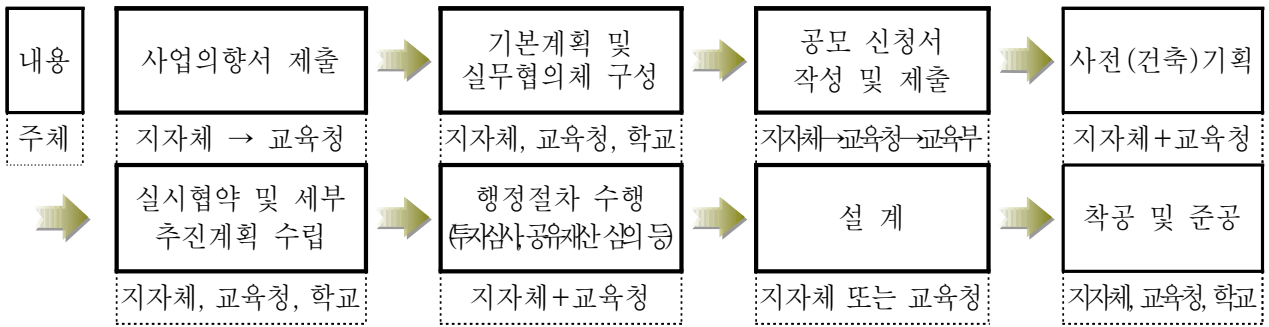
3.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례2)

경상북도교육청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에는 도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교육부 공모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전국 최대 7개의 학교복합시설 대상지에 선정되었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에는 도교육청 시설과에 학교복합시설담당을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진행하는 7개 지역의 사례를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가. 경북 학교복합시설의 개요

- 1) 추진 대상: 유(공립)·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소유 부지(폐교 등)
- 2) 대상 선정: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 또는 자체 선정
 - ※ 전국 17개 시·도 대상 5년간 약 200개 사업 선정 및 재정지원(매년 40교 정도)
- 3) 사업 내용: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보건·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조성
- 4) 시설 종류: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담당 제공 자료 편집



〈그림 II-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절차

〈표 II-7〉 사업 재원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	비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와 연계한 경우 10% 가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 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일괄지원
20% 이상 - 40% 미만	25%	
40% 이상	20%	

※ 총사업비는 사업특성 및 지역여건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으나 교육부 지원비는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사단가(4,041천원/㎡) 이내에서 지원(단, 철거, 도서지역 등 특수 요인은 인정함)

나. 경상북도의 학교복합시설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활발한 전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8〉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구분	연번	지역	학교명	사업 유형	총사업비 (억 원)	추진단계
'23년	1	포항	가칭)효자중	주차장	135.8	타당성 조사 (‘24. 2. ~ 8.)
	2	경산	구)하양초화성분교	수영장	275	사전(건축)기획 (‘24. 3. ~ 8.)
	3	김천	울빛유치원	수영장	150	
	4	구미	도송중	주차장	222	
	5	구미	구미초	주차장	300	
	6	울릉	울릉학생체육관	주차장, 주민대피시설	358.8	
	7	영양	영양초	주차장	117.2	공사 중 (‘24. 3. ~ ‘25. 2)
'24년	1	안동	안동강남초	주차장	160	사전기획 (‘24. 5. ~ 10.)
	2	울릉	울릉고	주차장, 체육관	266	

다. 복합시설의 구체적인 부대시설 현황과 사업비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9>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세부 현황

연도	구분	지역	학 교	복합시설		사업비(억원)				
				주요시설	부대시설	총 사업비	교육부 지원비 등	지원 규모*	지방비	
									지자체	교육청
'23	1	포항	효자중	주차장	체육관	135.8	33.95	A: 25%	101.85	-
	2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수영장	놀봄센터, 북카페, 한국어교육센터, 평생학습시설	275	96.25	A: 25% B: 10%	128.75	50
	3	김천	울빛유치원	수영장	목욕탕, 주차장	150	60	A: 30% B: 10%	78.75	11.25
	4	구미	도송중	주차장	체육관, 급식소, 시청각실	222	55.5	A: 25%	116.5	50
	5	구미	구미초	주차장	돌봄시설, 도서관, 다목적강당	300	105	A: 25% B: 10%	165	30
	6	울릉	울릉학생 체육관	주차장, 주민대피시설	놀봄센터, 평생학습시설, 도서관	358.8	179.4	A: 30% B: 10% C: 10%	129.4	50
	7	영양	영양초 (BTL)	주차장	맞이방, 운동장 생태공원	117.2	39.2	A: 30% C: 10%	78	-
합 계						1,558.8	569.3		798.25	191.25
'24	1	안동	안동강남초	주차장	놀봄교실, 맞이방, 북카페, 동아리실	160	80	C: 50%	80	-
	2	울릉	울릉고	복합체육시설	주차장, 어린이집	169*	C: 50%	63	34	
합 계						426	249		143	34

※ 지원규모(2023년): A 재정자립도에 사업비 지원 [20%미만: 30% / 20~40%: 25% / 40%이상: 20%],

B 놀봄학교, 돌봄, 방과후학교 연계사업 10% 가산 / C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가산

※ 지원규모(2024년): A, B '23년과 동일 / C 인구감소지역 50% / D 수영장 설치 시 50%

※ 울릉고: (교육부)133억+(문체부)생활체육시설 확충 30억+(복지부)어린이집 6억

<표 II-10>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신청 사업

구분	지역	학 교	복합시설		사업비(억원)				
			주요시설	부대시설	총 사업비	교육부 지원비	지원 규모*	지방비	
								지자체	교육청
1	영천	금호초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275	137.5	D: 25%	112.5	25
2	울진	울진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돌봄센터	200	100	C: 50%	100	-
3	문경	문경중	수영장	주차면(48면)	118	44	C: 50%	37	37
4	포항	가칭)초곡중	청소년 자율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57	22.8	A: 30% B: 10%	34.2	-

※ 지원규모(2024년): A 재정자립도에 사업비 지원 [20%미만: 30% / 20~40%: 25% / 40% 이상: 20%] B 놀봄학교, 돌봄, 방과후학교 연계사업 10% 가산 / C 인구감소지역 50%, D 수영장 설치 시 50%

Ⅲ. 연구의 가설 · 범위 및 조사설계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부터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래서 이곳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개념, 필요성 나아가 문제점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지역이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결음마 단계의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교육환경, 지역적 특색 및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가설 1: ‘학교복합시설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가.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식인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 1) 지역별: 경북 2교, 서울 및 경기 4교, 경남 3교
- 2) 사업추진경위별: 교육부 공모사업 및 그린스마트 4교, 자체사업 4교, 생활SOC 1교
- 3) 추진현황별: 운영중 4교, 공사중 1교, 설계중 1교, 기획중 3교
- 4) 소속학교별: 초등학교 5교, 중고등학교 4교

〈표Ⅲ-1〉 면접 인터뷰 대상학교 목록

학교명 또는 복합시설명	지역	설립 형태	사업추진 경위	준공 년도	추진 현황	학교 구분	학교복합시설 용도
(구)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 센터	경북 경산시	공립	교육부 공모사업		기획 중	초등학교	수영장, 도서관,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기타(미디어체험실, 요리체험실, 댄스실, 메이커교육관, 멀티룸)
문경중학교	경북 문경시	공립	자체사업	2024	설계 중	중학교	수영장, 기타(GX실)
금호초등학교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서울 성동구	공립	자체사업	2001	운영 중	초등학교	수영장, 체육관, 평생문화시설, 공영주차 장, 기타(헬스장, 에어로빅실, 피아노실, 문화강좌실)
소래초등학교 (소래너나들이센터)	경기 시흥시	공립	그린스마트	2023	운영 중	초등학교	도서관, 평생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기타 (공연장, 조리실습실)
송린중학교 (송린이움터)	경기 화성시	공립	자체사업	2019	운영 중	중학교	도서관,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기타 (교실, 다목적실, 미디어실, 요리교실, 어 린이집)
배곧누리초등학교 (배곧너나들이센터)	경기 시흥시	공립	자체사업	2019	운영 중	초등학교	도서관,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기타 (교실, 강의실, 북카페, 육아카페)

학교명 또는 복합시설명	지역	설립	사업추진 경위	준공 년도	추진 현황	학교 구분	학교복합시설 용도
(가칭)석금산중학교	경남 양산시	미정	교육부 공모사업		기획 중	중학교	체육관, 평생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기타 (AI 코딩교육, 유소년 풋살장)
하이초등학교	경남 고성군	공립	교육부 공모사업		기획 중	초등학교	도서관, 평생문화시설
영산고등학교(폐교)	경남 창녕군	공립	생활SOC	2023	공사 중	고등학교	체육관, 평생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기타 (테니스장, 다목적홀, 학습공간, 자료실)

나. 면접 인터뷰 대상학교 확정 방법

- 인맥을 활용한 면접 인터뷰 요청
- 최소 3~4교를 면접 인터뷰 대상학교로 확정
- 사업추진 경위가 교육부 공모사업 및 그린스마트와 자체사업인 학교를 골고루 확정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중인 학교 50% 이상 포함해 확정

다. 면접 인터뷰 방법

- 방문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회의를 이용한 인터뷰도 적극 활용
- 한 학교에서 가능한 교육행정직, 교원, 운영위원(또는 학부모)을 면담할 수 있도록 준비
- 4주제 담당 연구원 1명 포함해 면접 인터뷰 실시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담당부서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방문 인터뷰 시 출장 협조 공문 발송

라. 질문지 내용

질문지(공통)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누가 최초로 사업 신청을 제안했는지, 사업 제안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자체사업 추진교는 최초 제안자 중심, 교육부공모는 최초 제안한 주체-교육청, 학교 등 중심, 생활 SOC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비전 중심으로)
-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신청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학교 구성원(일반직, 교원, 학부모 등)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나 우려를 했나요?
-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부모 등)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나 우려를 했나요?
-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사항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사항이 별로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 할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중인 학교만 해당)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중인 학교만 해당)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중인 학교만 해당)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단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야 할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 동선과 일반인의 동선은 분리되었는지 분리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분리되었고 분리되지 않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지(교직원용)

- 교직원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얼마나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계의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되었나요?
-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누구이며 추정하는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양초 화성분교) 인근에 주택단지가 없고 상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해 학교복합시설을 유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시공 중이거나 완공된 학교만 해당)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설물의 소유권과 운영권,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물의 운영비 부담, 프로그램 경비 부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중인 학교) 시설물 관리 권한과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운영중인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생 안전 사고 예방 방안과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지(학부모용)

- 설계의 과정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학생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나 운영위원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인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인 경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연구가설이 ‘참’이라는 연구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을 전제로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관련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의 부지 또는 건물 이 교육감소속 공유재산임을 감안한다면 그곳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인식 정도가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직구성원들임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연구가설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관련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부정적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연령, 경력, 직급, 소속학교로 두고 총 12 문항을 진행하고자 한다. 12문항을 대분류로 유목화를 해 보면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4문항), 필요도(5문항), 교육과정 융합도(3문항)의 3가지이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2> 설문지 문항 구성

분류	문항	설문지 문항
독립 변수	1~4	1. 연령대 2. 경력 3. 직책(급) 4. 소속학교
이 해 도	5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6	(위 5번 문항에서 연결) 들어 보았다면(③,④)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①보도자료 등 뉴스 ②정책설명회 ③공문서 ④기타()
	7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8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필 요 도	9	우리학교는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이다.
	10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11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12	학교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13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교 육 과 정 융 합 도	14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가능하다.
	15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 가능한 복합화 시설은 무엇인가요? ①융합교육과정(메이커스페이스-AI, 로봇, 자동차 등) ②기술공간(3차원 제작공간, 체험공간, 프린터공간) ③경험공간(다목적실, 퍼포먼스룸) ④안전교육 공간(안전체험관, 수영장, 다목적홀) ⑤스포츠활성화 공간(다목적공간, 수영장, 체육관) ⑥청소년 상담 및 교육공간(진로직업 상담교육실) ⑦돌봄교실연계공간
	16	위 15번 문항 답변 외에 교육과정 연계가능 복합화 시설이 있다면?

제2절 연구대상자의 범위

연구대상자는 ‘가설1’ 과 ‘가설2’ 에 따라 달라진다. ‘가설1’ 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갖추거나 예정중인 타지역 학교 7곳과 경북에서 2023년 선정된 7개 학교 중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설2’ 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모집단을 다음과 같다.

<표Ⅲ-3> 양적 연구의 범위(모집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현황(기준일: 2023. 9. 1.)			
공립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합계
18,420명	416명	4,982명	23,818명

※ 본 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2024년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정원을 적용함

제3절 조사설계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를 선정 후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자 한다. 질문지의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을 하게 된 계기, 최종 의사결정 과정,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반응, 추진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양적연구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의 항목은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 필요성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온 데이터를 빈도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법으로 통계분석하고자 한다.

IV. 설문지의 분석

제1절 ‘가설1’의 질적분석

조사설계에 따른 질문지 연구의 수행으로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가설1’을 검증했다.

질적 연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타지역 학교와 경북에서 2023년 선정된 7개 학교 중에 섭외가 가능했던 타지역 학교 2곳과 경북지역 학교 2곳을 선정했다.

〈표 IV-1〉 면접 인터뷰 선정학교 목록

학교명 (복합시설명)	지역	설립 형태	사업 추진경위	준공 년도	추진 현황	학교 구분	학교복합시설 용도
능평초등학교 (능평스포츠클럽센터)	경기 광주시	공립	생활SOC	2023	운영 중	초등학교	수영장, 기타(GX실),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실
배곧누리초등학교 (배곧너나들이센터)	경기 시흥시	공립	자체사업	2019	운영 중	초등학교	도서관,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기타(교실, 강의실, 북카페, 육아카페)
울진고등학교	경북 울진군	공립	자체사업	2024	설계 중	고등학교	어린이도서관, 거점형돌봄센터, 종합자료실, 북카페, 직업체험관, 소강당
(구)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 센터	경북 경산시	공립	교육부 공모사업		기획 중	초등학교	수영장, 도서관,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기타(미디어체험실, 요리체험실, 댄스실, 메이커교육관, 멀티룸)

경기도 광주시 소재 능평초등학교는 경기교육행정연구회장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의 도움을 받아 능평초등학교 행정실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행정실장 면담 후에 학교복합시설 구축 과정에 대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에게 추가로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배곧누리초등학교는 사전 섭외를 못해 학교 방문 후 행정실장과 간단히 면담을 진행하고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장과 추후 서면 질의 답변을 진행기로 했다. 하지만 센터장이 바빠서 서면이 아닌 전화 면담을 진행했으며 시설관리와 관련해 행정실장의 서면 답변도 받았다.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고등학교는 행정실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교복합시설 추진 과정에 대해서 울진교육지원청 및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북 경산시 소재 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는 관리 주체가 경산교육지원청이므로 교육지원청 시설업무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학교복합시설 구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

1. 변화하는 사회 현실

학교복합시설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하기 위해 먼저 변화하는 사회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현실은 크게 우리사회의 관점과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관점에서 가장 드러나는 사회현실은 인구소멸과 노령인구 증가이다.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는 것이다. [노컷뉴스(2023. 12. 11.)]

인구소멸의 극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육아, 돌봄 등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돌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도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2023. 11. 24.)]

노령인구 증가라는 현실에서 학교가 노령인구 등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관점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인구소멸의 극복을 위한 돌봄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의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 확대에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은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유엔의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 등이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역사적 시점의 대표적 특징이다.’ 라고 판단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국문판) 14쪽~15쪽, 2021]

또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세계사회의 현실에서 교육은 공공의 노력(공공재)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로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동의 사회적 행위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그

쳐서는 안 되며,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 청소년운동, 지역사회 기반 그룹, 트러스트, 비정부기구, 기업, 전문가협회, 자선단체, 종교기관, 사회운동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한다.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은 우리사회의 다문화 인구 비율 증가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다문화 학생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작년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수의 약 3.5%에 해당하면, 10년 전인 2013년 55,780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모영민, 2024.)

<표IV-2> 다문화 학생 수 현황

단위: 학생 수(명), 비율(%)

연도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비율
	학생 수	증감률	학생 수	증감률	
2013	6,489,349	-3.6	55,780	18.8	0.86
2014	6,294,148	-3.0	67,806	21.6	1.08
2015	6,097,297	-3.1	82,536	21.7	1.35
2016	5,890,949	-3.4	99,186	20.2	1.68
2017	5,733,132	-2.7	109,387	10.3	1.91
2018	5,592,792	-2.4	122,212	11.7	2.19
2019	5,461,614	-2.3	137,225	12.3	2.51
2020	5,355,832	-1.9	147,378	7.4	2.75
2021	5,332,075	-0.4	160,058	8.6	3.00
2022	5,284,164	-0.9	168,645	5.4	3.19
2023	5,218,498	-1.2	181,178	7.4	3.4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학교복합시설이 공공재를 넘어 공동재로서 다양한 교육 관계자의 참여하고 협업하는데 적합한지,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실천에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2. 우리사회 현실과 학교복합시설

능평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인터뷰어: “만약 주위에 친한 행정실장이 우리 학교도 그 복합 시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나요?”

인터뷰이: “그 지역 주민이라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할 거고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능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인 능평스포츠센터는 생존 수영 외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고 학교 인근에 사는 교직원 1명만 이용하는데도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과 학교복합시설 이용 차량의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능평초 행정실장은 학교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장점이라 생각했다. 복합 시설이 다른 데 만들어 진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어: “복합 시설이 다른 곳에 만들어 진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선 좋죠. 같이 시공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설이 이루어지는 거는 국가 지원 측면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편의적인 게 좋고 장점이죠.”

시흥시학교복합시설너나들이 홈페이지에는 배곧누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의 여러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주민을 위해 고전 인문학, 사진촬영을 비롯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 돌봄을 위해 창의미술, 유아체육 등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작은 도서관도 센터에서 운영하며 강의실, GX(단체 운동수업)실, 카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대관도 한다.

배곧너나들이 센터장은 학교 협력 사업으로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능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배곧누리초등학교는 다양한 주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 돌봄 사업도 펼친다.

경북도교육청(학교)과 울진군의 입장 차이로 학교복합시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울진고등학교의 (가칭)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아이 돌봄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겠지만 주민의 평생교육 기능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칭)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어린이도서관 거점형돌봄센터 종합자료실 및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키즈클래스 직업체험관 소강당 등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면담에서 지역과 학교에서 공유 가능한 교육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산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의 학교복합시설은 생존수영교실, 방과후 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영장 시설 건립 요구도 반영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며, 주요 제안 이유로는 해당 시·군의 유휴 부지가 없어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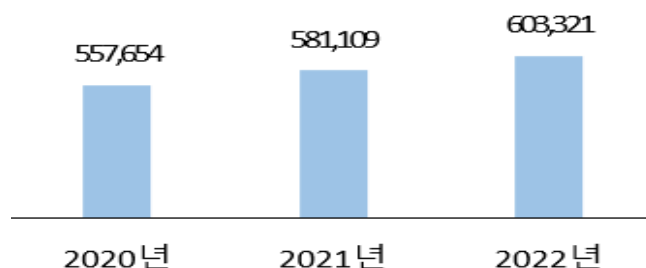
(가칭)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아이 돌봄이 중심이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경산 화성분교 학교복합시설은 이이 돌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준공한 경기지역 2교와 기획단계인 경북지역 2교 모두 학교복합시설이 인구소멸의 극복을 위한 돌봄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의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 확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가 노령 주민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경상북도 노인등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경북지역의 현실에서 노령 주민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도 경북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구축에서 그런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2022년 경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620,373명 중 603,321명으로 23.0%를 차지하며, 2020년 21.1%, 2021년 22.1%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성별 비율은 여성 343,819명(57.0%)으로 남성 259,502명(43.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은 152,660명으로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경상북도 보도자료, 통계분석을 통한 경상북도 노인인구 삶의 모습은, 2023. 12. 28)



〈그림Ⅳ-1〉 최근 3개년 경북 노인 인구

*출처: 경상북도보도자료(2023. 12. 28.)

경북도교육청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경북지역의 현실에 맞게 학교가 노령 주민을 위한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3. 세계시민사회 현실과 학교복합시설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가 강조한 교육이 공공재를 넘어 공동재로서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업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넘어선다. 교육활동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능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능평초 개교를 위한 ‘(2017. 7.) 교육부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의 조건부 부대의견이 있어 추진했던 사항이며, 중앙투자심사 이후 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광주시와 복합화시설 추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2017. 11.부터 2018. 4.까지 능평동 일대 주민의 교육여건과 편익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복합화시설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였다고 한다. 능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관계자의 참여는 일부 있었으나 교육에 있어 협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주민 중심의 복합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반면에 배곧누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는 구축과정에서도 교육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했고 교육 내용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곧너나들이센터장에 따르면 복합시설 구축 과정에서 주민과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복합시설 운영과정에도 주민과 교육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곧너나들이센터에는 운영협의회가 있으며 학교 주위 아파트 3개 단지 대표, 학교장, 부장교사, 동장, 주민자치회장, 시흥시 주무부서 과장, 센터장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센터 사용료라든지 지역주민 이용 시간대, 센터 이용 방향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한다.

너나들이센터의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교 협력 프로그램, 주민주도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마을 강사를 양성해서 프로그램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어: “너나들이센터의 프로그램으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뷰이: “주민 참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올해 2024년도에 두 번의 축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작은 축제이고 한 번은 마을 축제로 해서 저희가 일 년에 가장 큰 행사를 진행합니다.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주민기획 단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과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다음 연도 프로그램에 대해 전년도 12월부터 다

음연도 2월까지 학교와 업무 협의를 하고 부장교사와 수시로 소통해 학년별로 교육 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을 위해 센터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인터뷰어: “센터장님이 학교운영위원장이시던데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인터뷰이: “교육 과정 연계를 할 때는 교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공공재를 넘어 공동체로서 다양한 교육관계자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교육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배곧너나들이센터가 참여와 협업이 있는 교육이 가능한 것은 시흥시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시흥교육지원청도 마을교육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복합시설 (가칭)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울진군이 군청 공유지를 활용한 가칭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에 직접 신청했다. 경북도교육청에서 울진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울진군, 울진교육지원청이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울진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없었지만 학교운영위원 및 전체 교직원 회의 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도교육청(학교)과 울진군의 입장 차이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다.

경산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학교복합시설을 묻는 질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인터뷰어: “하양초 화성분교의 학교복합시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인터뷰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영장 시설 건립 요구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한다는 방안과 취지가 부합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도교육청, 경산시청, 마을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대략적인 사업 구상이 나온 이후에는 학교 사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과정에도 교육 관계자의 참여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에 있어 참여와 협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경북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회,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북형 학교복합시설이 세계시민사회 관점의 참여와 협업이 있는 교육 실현에 다가갈 수 있을 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적합한 학교복합시설이 될 수 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리단위의 마을자치회가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의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상주시, 주민이 주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산시, 경주시 안강읍, 포항시 흥해읍에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한다면 참여와 협업이 있는 교육을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준공된 2개의 학교복합시설 사례에서는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실천이라는 사회현실 과제에 적합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 다만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센터는 한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뷰어: “하양초 화성분교의 학교복합시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뷰이: “화성분교 복합센터가 놀봄센터의 기본기능 수행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인근 진량공단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인구가 적지 않은 경북의 현실에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은 다문화 인구 증가에 호응하는 교육시설로도 구축해 볼 만하다.

4.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

능평초등학교 행정실장이 면담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이유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배곧누리초등학교 행정실장도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터뷰이: “학교복합시설이 학생 안전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이: “개방된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시설관리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담장으로 외부인이 쉽게 넘어 다닐 수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시설관리도 어렵습니다.”

학교장이나 학교 행정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안전관리의 문제이다. 그 다음 문제는 안전관리의 명확한 책임소재이다. 학교 안전관리가 학교장이나 행정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 화성분교는 유아교육체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학생 일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울진고등학교는 기획 단계이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이미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배곧누리초등학교와 능평초등학교는 각각 배곧누리센터와 광주시도시관리공사가 관리운영 주체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조직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학생과 주민의 동선이 겹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생 일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화성분교를 제외하고는 건물 안과 밖에 별도 출입구를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이다.

현장 답사 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와 능평초등학교 모두 건물 안에 교실에서 학교복합시설로 이동하는 학생용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다.

건물 밖도 두 학교 모두 학교복합시설과 교실을 출입하는 별도의 문이 있었다.

능평초등학교는 산을 깎아 비탈면에 지은 건물로 학교복합시설은 교실보다 아래층에 존재해 자연스럽게 아래 위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였다. 다만, 하나의 교문으로 주민의 차량과 학생이 출입하므로 등하교길 안전 문제가 있는데 비탈면 구조상 별도의 교문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곧누리초등학교는 학교 정문과 학교복합시설 정문이 별도로 있으나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어떤 게 학교 복합시설 정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걸어서 방문할 경우에 학교복합시설 정문으로 들어가도 건물 밖에서는 학교로 이동하기 쉬었다.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주체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들의 면담과 서면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Ⅳ-3〉 학교복합시설의 안전관리 내용 비교

구분	배곧누리초	능평초	화성분교	울진고
관리운영주체	배곧누리센터	광주시도시관리공사	확인안됨	확인안됨
건물안 동선분리	별도 출입구, 활동시 학생에 개방	별도 출입구, 활동시 학생에 개방	해당없음	별도 출입구 요청
건물밖 동선분리	별도 출입구, 누구나 이용 가능	별도 출입구, 구조상 완전분리	해당없음	분리예정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할 때 건물 밖의 출입문을 완전히 분리함과 동시에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에 대한 출입은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학교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복합시설 관리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방식이었다. 배곧누리초등학교 행정실장이 면담에서 학교와 너나들이센터가 셉테드로 관리된다는 언급을 했다.

셉테드(CPTED)는 1971년 Rey Jeffer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약자가 되어 불리게 된 것을 용어의 시작으로 한다. 직역하면,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으로 도시설계와 범죄학의 협업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간과 인간이 범죄행동에 상호관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설계에서부터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방식이다.(김달호, 2021.)

이런 셉테드 방식이 학교 건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도 202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도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 학교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을 활용해 학교 내 사각지대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을 사전에 정비하고, 학교폭력과 각종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뉴시스(2024. 7. 3.)]

배곧누리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지적처럼 셉테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학생 안전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셉테드의 핵심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셉테드 방식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건물의 관리자와 주민 등 관계자 그것을 알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셉테드의 안전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

Schneider et al.(2000)은 셉테드의 핵심 개념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즉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능력),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영역성(territoriality, 사용자를 억제하면서도 합법적인 사용자를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들었다. 또한 셉테드의 핵심 원리로는 여섯 가지를 들었다. 즉 첫째,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것, 둘째, 물리적 환경 및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것, 셋째, 설계상의 약점이 있는 곳은 어디든 주의할 것, 넷째,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질 것, 다섯째, 바람직한 행동을 고무할 수 있게 공간을 더욱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여섯째, 셉테드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것을 들었다.

셉테드는 디자인을 통해 건물 관계자나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고(자연적 감시), CCTV등 보안설비와 디자인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면서(접근통제) 공간배치를 통해 건물 관계자나 주민, 학부모 등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자료에 따르면 셉테

드는 3세대로 접어들었다. 1세대가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의 강화 등 셉테드의 기본 원칙에 입각,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물리 환경을 설계·개선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방법이면 2세대는 주민이 환경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물리적 개선과 함께 유대감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법이다.

3세대는 2세대 셉테드에 대한 접근을 확장,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추진 절차 구축, 셉테드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1쪽에서 재정리, 2018)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구성원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셉테드에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학교복합시설이 세계시민사회 관점의 참여와 협업이 있는 교육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이 된다.

경북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에 셉테드 방식을 적용하려면 구성원의 교육 내용 참여와 안전관리 시설 구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능평초등학교 복합시설 구축 과정에서 “능평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했기에(학교 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청과 협의 미대상),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경청 의견 보완을 위해 설계가 변경되는 등의 행정 절차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개교가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지연” 되었다 서면으로 답했다.

학교복합시설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각종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예상한 기간보다 실제로는 더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학교복합시설 구축에 참고해야 한다.

요컨대, 학교복합시설은 인구소멸의 극복을 위한 돌봄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의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 확대, 복잡한 세계사회의 현실에서 참여와 협업이 있는 교육 실현, 다문화 인구 증가에 호응하는 교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을 경북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북형으로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교육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노령 주민을 위한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 구축, 다문화 인구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다문화 인구 증가에 호응하는 교육시설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가설2’의 양적 분석

학교복합시설사업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의 인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기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으며 응답자는 4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의 범주는 크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 필요도, 교육과정 융합도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의 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유레카 3.0버전을 사용하였다.

1.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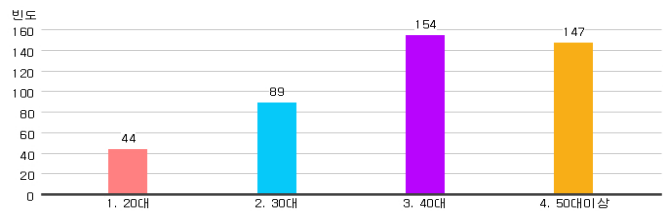
빈도분석은 분석대상이 될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모두 16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는데 16번 문항은 서술형으로, 15번 문항에서 확장된 설문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독립변수(1~4)

문항 1번에서 4번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독립변수로 연령대, 경력, 직책(직급), 소속 학교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구분한 이유는 빈도분석에서는 단순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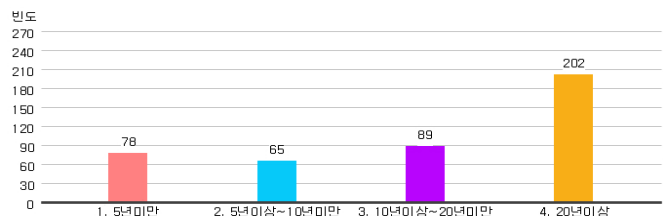
<표 IV-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문항1)

연령대	빈도	백분율
1. 20대	44	10.1
2. 30대	89	20.5
3. 40대	154	35.5
4. 50대이상	147	33.9
TOTAL	4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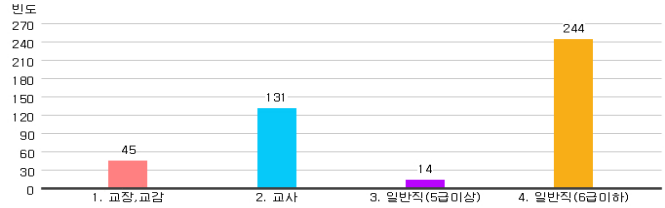
<표 IV-5>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문항2)

경력	빈도	백분율
1. 5년미만	78	18.0
2. 5년이상~10년미만	65	15.0
3. 10년이상~20년미만	89	20.5
4. 20년이상	202	47.5
TOTAL	4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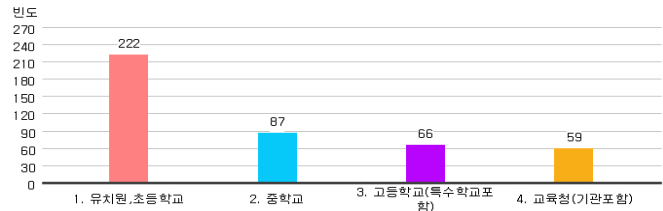
<표Ⅳ-6> 귀하의 직책(직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문항3)

직책(직급)	빈도	백분율
1. 교장,교감	45	10.4
2. 교사	131	30.2
3. 일반직(5급이상)	14	3.2
4. 일반직(6급이하)	244	56.2
TOTAL	434	100.0



<표Ⅳ-7> 귀하의 현 소속 학교는 어디입니까? (문항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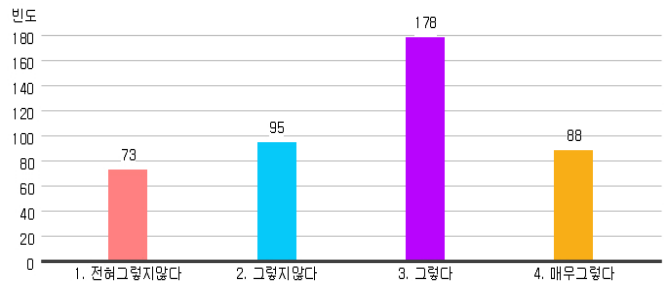
소속 학교	빈도	백분율
1. 유치원,초등학교	222	51.2
2. 중학교	87	20.0
3.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15.2
4. 교육청(기관포함)	59	13.6
TOTAL	434	100.0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5~8)**

문항 5번에서 8번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경북교육청 교육관련자는 얼마나 들어 보았는지? 어떤 경로는 들었는지?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책 인식 여부와 학교복합시설의 연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Ⅳ-8>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문항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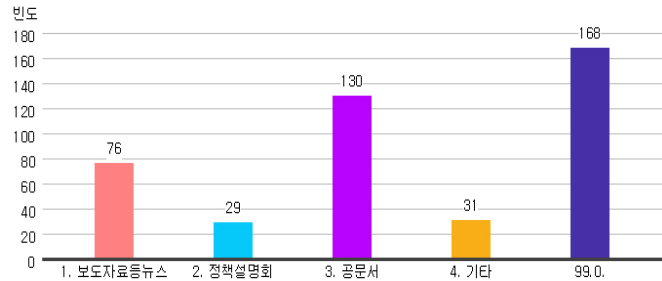
들어 본 경험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73	16.8
2. 그렇지않다	95	21.9
3. 그렇다	178	41.0
4. 매우그렇다	88	20.3
TOTAL	434	100.0



경북교육청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 제정 이래 2022년 도조례 제정, 2024년 도교육청에 학교복합시설 전담 담당부서 신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7개의 학교가 공모 선정되었다. 이러한 경북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는 긍정답변(61.3%)이 부정답변(38.7%)보다 높았다.

〈표Ⅳ-9〉 (위 5번 문항에서 연결) 들어 보셨다면(③,④)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문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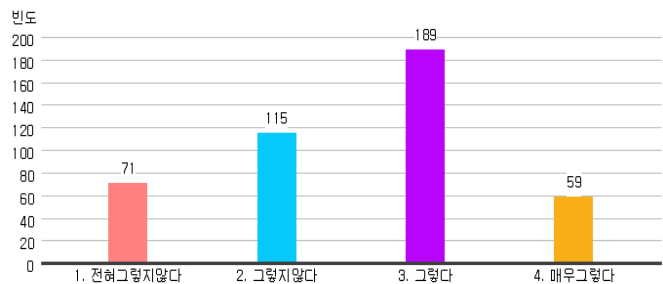
어떤 경로로?	빈도	백분율
1. 보도자료등뉴스	76	17.5
2. 정책설명회	29	6.7
3. 공문서	130	30.0
4. 기타	31	7.1
5. 무응답	168	38.7
TOTAL	434	100.0



이번 문항은 5번 문항에서 긍정답변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은 공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들어 보았으며 그 뒤로 보도자료, 기타, 정책설명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0〉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문항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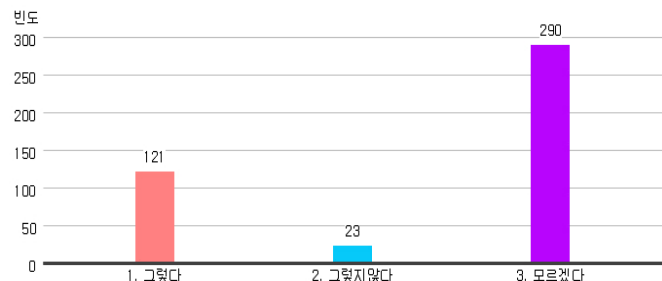
지역소멸 대응책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71	16.4
2. 그렇지않다	115	26.5
3. 그렇다	189	43.5
4. 매우그렇다	59	13.6
TOTAL	434	100.0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사업에 대한 긍정답변은 57.1%로 부정답변 42.9%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교직원들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11〉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문항8)

연혁 이해	빈도	백분율
1. 그렇다	121	27.9
2. 그렇지않다	23	5.3
3. 모르겠다	290	66.8
TOTAL	434	100.0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 서울금호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번 설문 응답을 통해 잘 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9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5~8)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Ⅳ-12〉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종합)

단위: %

문항 답변	들어 본 경험 (5.이해도)	지역소멸 대응책 (7.이해도)	연혁 이해 (8.이해도)
부정답변	38.7	42.9	94.7
긍정답변	61.3	57.1	5.3
결과	긍정	긍정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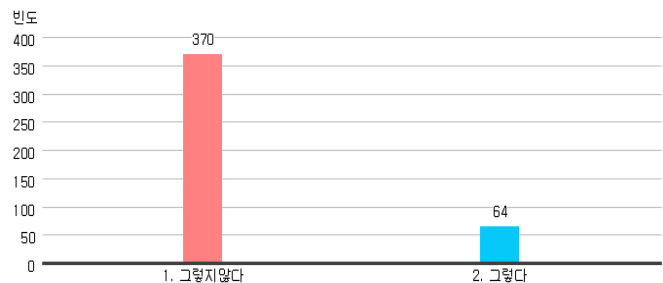
학교복합시설의 정책이해도를 종합해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들어 본 경험, 지역소멸 대응책이라는 의견이 다소 많아 긍정적이나, 실제적으로 사업현황(연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답변이 다소 많기는 하나 정책적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9~13)

문항 9번에서 13번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대상 여부,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여부, 지역상생정책으로 인식 여부, 학교개방정책 인식 여부, 학생필요정책 인식 여부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Ⅳ-13〉 우리학교는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이다. (문항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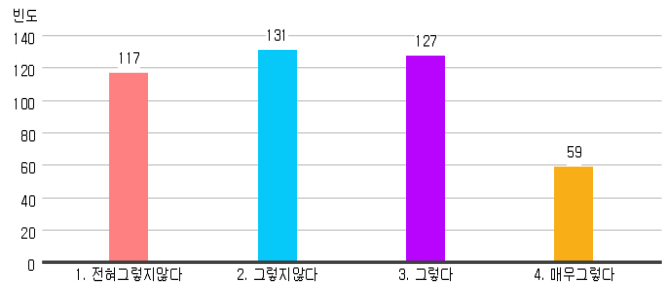
대상 여부	빈도	백분율
1. 그렇지않다	370	85.3
2. 그렇다	64	14.7
TOTAL	434	100.0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 서울금호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번 설문 응답을 통해 잘 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94.7%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14〉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문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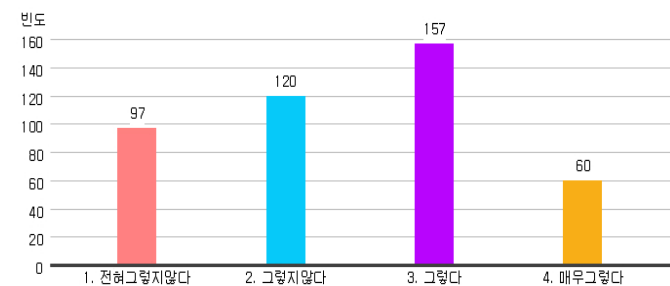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117	26.9
2. 그렇지않다	131	30.2
3. 그렇다	127	29.3
4. 매우그렇다	59	13.6
TOTAL	434	100.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학교내 유휴교실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 필요성은 부정답변 57.1%로 긍정답변 42.9%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 교직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5〉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문항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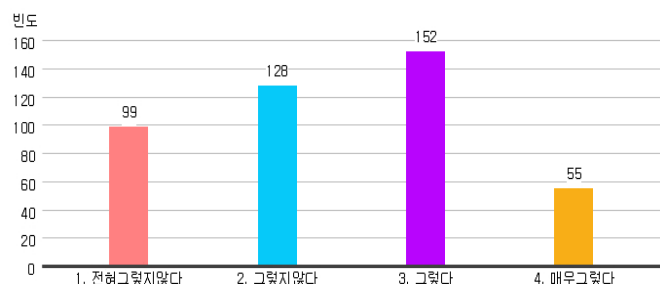
지역상생정책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97	22.4
2. 그렇지않다	120	27.6
3. 그렇다	157	36.2
4. 매우그렇다	60	13.8
TOTAL	434	100.0



학교복합시설이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미래형 학교’라는 인식에는 부정답변과 긍정답변이 각각 50.0%로 동일하게 나왔다. 10번 항목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꺼려 지지만 결국 미래에는 추진해야 하는 교육의 방향임은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16〉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문항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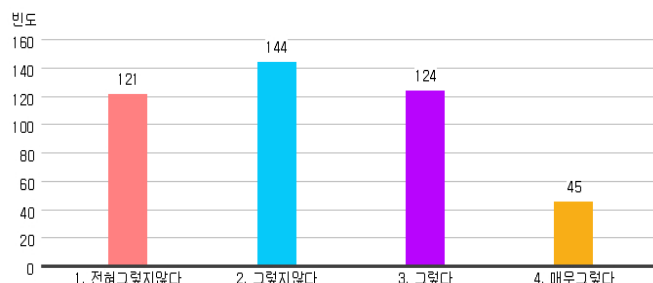
학교개방정책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99	22.8
2. 그렇지않다	128	29.5
3. 그렇다	152	35.0
4. 매우그렇다	55	12.7
TOTAL	434	100.0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비교적 폐쇄성이 높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교직원들의 생각은 부정답변 52.3%, 긍정답변 47.7%로 나타났으며 부정답변이 다소 높게 나왔다.

〈표Ⅳ-17〉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문항13)

학생에게 필요 사업	빈도	백분율
1. 전혀그렇지않다	121	27.9
2. 그렇지않다	144	33.2
3. 그렇다	124	28.6
4. 매우그렇다	45	10.3
TOTAL	434	100.0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사회(주민)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문에는 부정답변이 61.1%로 긍정답변 38.9%보다 많이 나왔다. 교직원들은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9~13)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Ⅳ-18〉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종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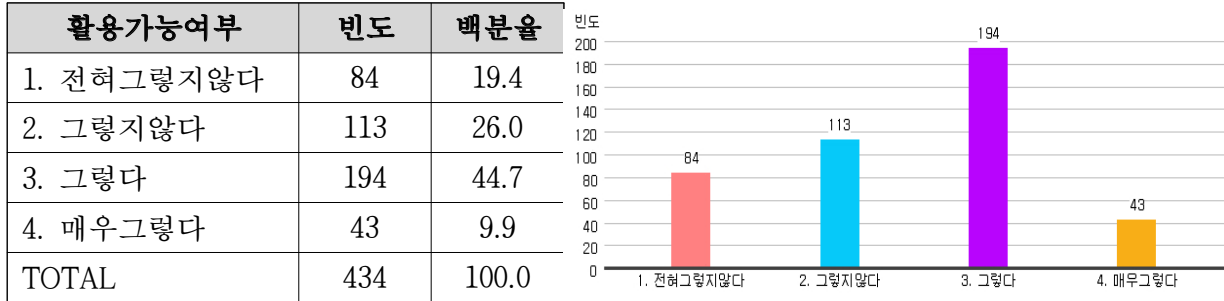
답변 \ 문항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10.필요도)	지역상생정책 (11.필요도)	학교개방정책 (12.필요도)	학생필요사업 (13.필요도)
부정답변	57.1	50	52.3	61.1
긍정답변	42.9	50	47.7	38.9
결과	부정	긍정·부정	부정	부정

학교복합시설의 정책필요도를 종합해 보면 11번 문항은 긍정 및 부정의 답변이 50%이며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부정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빈도분석으로 보았을 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교육관련자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2’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 융합도(14~16)

문항 14번에서 16번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교육과정 융합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가능 여부, 활용가능한 복합시설 유형, 기타답변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V-19>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문항14)



학교복합시설의 교육과정 융합도에 대한 설문은 부정답변 45.4%, 긍정답변 54.6%로 나왔으며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활용방안이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20> 학교복합시설의 교육과정 융합도

단위: %

답변 \ 문항	활용가능여부 (14.교육과정융합도)
부정답변	45.4
긍정답변	54.6
결과	긍정

<표 IV-21>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 가능한 복합화 시설은 무엇인가? (문항15)

- ①융합교육과정(메이커스페이스-AI, 로봇, 자동차 등) 120명(12.23%)
- ②기술공간(3차원 제작공간, 체험공간, 프린터공간) 96명(9.79%)
- ③경험공간(다목적실, 퍼포먼스룸) 168명(17.13%)
- ④안전교육 공간(안전체험관, 수영장, 다목적홀) 108명(11.01%)
- ⑤스포츠활성화 공간(다목적공간, 수영장, 체육관) 271명(27.62%)
- ⑥청소년 상담 및 교육공간(진로직업 상담교육실) 98명(9.99%)
- ⑦늘봄교실연계공간 120명(12.23%)

〈표 IV -22〉 상관분석

	지역소멸대응책 (7.이해도)	유희교실에따른필요 (10.필요도)	지역상생정책 (11.필요도)	학교개방정책 (12.필요도)	학생필요사업 (13.필요도)	교육과정융합 (14.융합도)
지역소멸대응책 (7.이해도)	1					
유희교실에따른필요 (10.필요도)	0.658	1				
지역상생정책 (11.필요도)	0.729	0.822	1			
학교개방정책 (12.필요도)	0.697	0.806	0.896	1		
학생필요사업 (13.필요도)	0.480	0.481	0.523	0.535	1	
교육과정융합 (14.융합도)	0.627	0.641	0.716	0.684	0.653	1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학교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복합시설이 지역상생정책이라고 생각($r=0.896$), 유희교실로 복합시설을 이용($r=0.806$)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상생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유희교실 사용($r=0.822$),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소멸대응책($r=0.729$)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융합에 대한 높은 응답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상생정책($r=0.716$)이라고 보고 있다.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지역소멸대응책이라고 이해하는 응답자가 유희교실 활용 복합시설이 필요($r=0.685$)하며 학교의 개방($r=0.697$), 학생에게 필요한 사업($r=0.480$), 교육과정융합도($r=0.627$)가 가능한 복합시설이라는 응답 등을 보였다. 또한, 교육과정융합도의 문항을 기준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와 필요도가 모두 0.6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627$), ($r=0.641$), ($r=0.684$), ($r=0.653$)

3. 분산분석

분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경력별, 직책(급)별, 소속 학교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경력별 차이는 수치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연령별, 직책(급)별, 소속 학교별 차이가 있었다.

3) 상관계수값(r)과 상관성 정도

* ± 0.9 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 $\pm 0.2 \sim 0.4$ 미만: 낮은 상관관계

* $\pm 0.7 \sim 0.9$ 미만: 높은 상관관계

* ± 0.2 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 $\pm 0.4 \sim 0.7$ 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표Ⅳ-23〉 분산분석(연령별-문항5)

문항5.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1.977	0.821	19.502	0.000
	30대	89	2.292	1.002		
	40대	154	2.701	0.901		
	50대이상	147	3.007	0.940		

경북교육청 교직원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최고 평균의 집단인 50대이상의 평균이 보통수준으로 여전히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4〉 분산분석(연령별-문항10)

문항10.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2.250	0.967	7.168	0.000
	30대	89	2.202	1.002		
	40대	154	2.078	0.960		
	50대이상	147	2.592	1.019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은 연령별로 비슷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조금 더 높은 평균(2.592)을 보였고 40대의 평균(2.078)이 가장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Ⅳ-25〉 분산분석(연령별-문항11)

문항11.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2.318	0.909	10.811	0.000
	30대	89	2.191	0.940		
	40대	154	2.227	0.967		
	50대이상	147	2.776	0.957		

학교복합시설은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 응답은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2.776)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분산분석(연령별-문항12)

문항12.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2.182	0.870	9.961	0.000
	30대	89	2.225	0.951		
	40대	154	2.188	0.941		
	50대이상	147	2.721	0.964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서는 50대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2.721)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40대, 20대의 순으로 평균을 보이고 있다.

〈표 IV-27〉 분산분석(연령별-문항13)

문항13.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2.341	0.963	3.741	0.011
	30대	89	1.978	0.917		
	40대	154	2.156	0.971		
	50대이상	147	2.381	0.968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주민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문에는 50대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2.381)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평균을 보이고 있다.

〈표 IV-28〉 분산분석(연령별-문항14)

문항14.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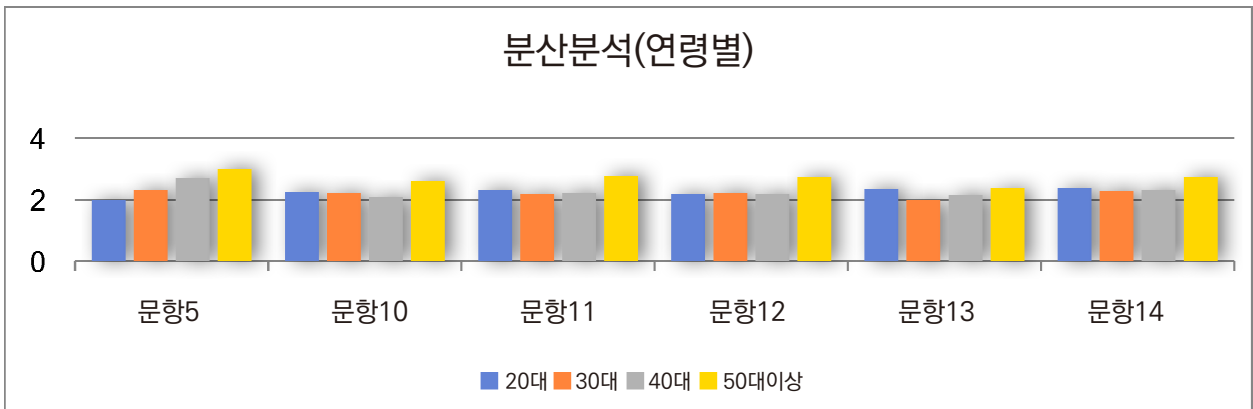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별	20대	44	2.386	0.841	7.206	0.000
	30대	89	2.281	0.879		
	40대	154	2.305	0.945		
	50대이상	147	2.728	0.865		

학교교육과정 융합도를 묻는 설문에는 50대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2.728)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룹을 연령별로 한 분석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Ⅳ-29〉 분산분석 종합(연령별)

문항	그룹 수준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들어 본 경험	문항5	1.977	2.292	2.701	3.007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문항10	2.250	2.202	2.078	2.592
지역상생정책	문항11	2.318	2.191	2.227	2.776
학교개방정책	문항12	2.182	2.225	2.188	2.721
학생필요사업	문항13	2.341	1.978	2.156	2.381
교육과정활용가능	문항14	2.386	2.281	2.305	2.728



연령별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 이상의 집단이며 그 외 세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2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인다.

〈표Ⅳ-30〉 분산분석[직책(급)-문항7]

문항7.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직책(급)별	교장,교감	45	2.822	0.984	4.549	0.004
	교사	131	2.450	0.905		
	일반직(5급이상)	14	3.214	0.975		
	일반직(6급이하)	244	2.504	0.896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소멸 대응책이라는 인식을 직책(급)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직(5급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3.214)을 보였으며 교장,교감 집단은(2.822) 그 다음으로 일반직(6급이하),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1> 분산분석[직책(급)-문항10]

문항10.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직책(급)별	교장,교감	45	2.444	1.013	4.035	0.008
	교사	131	2.221	1.025		
	일반직(5급이상)	14	3.143	0.864		
	일반직(6급이하)	244	2.258	0.991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화 사업 추진은 일반직(5급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3.143)을 보였으며 교장,교감 집단은(2.444) 그 다음으로 일반직(6급이하),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2> 분산분석[직책(급)-문항11]

문항11.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직책(급)별	교장,교감	45	2.822	0.912	6.317	0.000
	교사	131	2.282	0.971		
	일반직(5급이상)	14	3.143	0.864		
	일반직(6급이하)	244	2.369	0.979		

학교복합시설이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책(급)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직(5급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3.143)을 보였으며 교장,교감 집단은(2.822) 그 다음으로 일반직(6급이하),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분산분석[직책(급)-문항12]

문항12.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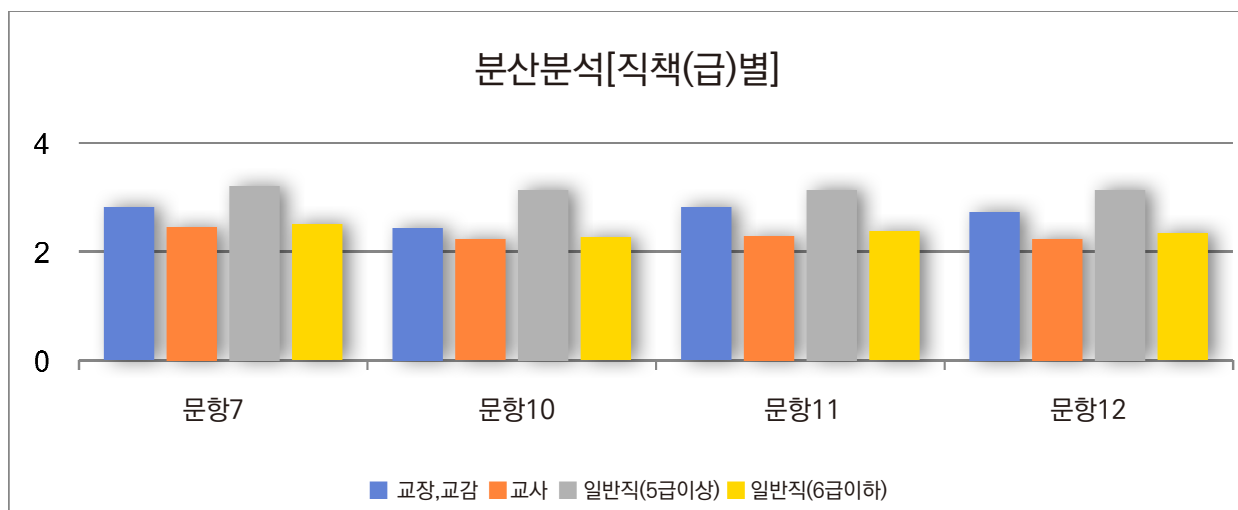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직책(급)별	교장,교감	45	2.733	0.963	6.225	0.000
	교사	131	2.229	0.957		
	일반직(5급이상)	14	3.143	0.864		
	일반직(6급이하)	244	2.344	0.958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사회 개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은 일반직(5급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3.143)을 보였으며 교장,교감 집단은(2.733) 그 다음으로는 일반직(6급이하),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을 직책(급)별로 한 분석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Ⅳ-34> 분산분석 종합[직책(급)별]

문항	그룹	직책(급)별			
	수준	교장,교감	교사	일반직 (5급이상)	일반직 (6급이하)
지역소멸대응책	문항7	2.822	2.450	3.214	2.504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문항10	2.444	2.221	3.143	2.258
지역상생정책	문항11	2.822	2.282	3.143	2.369
학교개방정책	문항12	2.733	2.229	3.143	2.344



직책(급)별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반직(5급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장·교감 집단이며 교사 및 일반직(6급이하) 집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별 수준의 분포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Ⅳ-35〉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7)

문항7.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속학교별	유치원,초등학교	222	2.374	0.902	7.926	0.000
	중학교	87	2.529	0.938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2.924	0.865		
	교육청(기관포함)	59	2.780	0.872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소멸 대응책이라는 이해도를 묻는 설문에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2.924)을 보였으며 교육청(기관포함)(2.780)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초등학교(유치원포함)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36〉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10)

문항10.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속학교별	유치원,초등학교	222	2.117	0.986	8.698	0.000
	중학교	87	2.218	0.970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2.591	1.022		
	교육청(기관포함)	59	2.746	0.958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교육청(기관포함)이 가장 높은 평균(2.746)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집단이 평균(2.591)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281), 초등학교(유치원포함)(2.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37〉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11)

문항11.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속학교별	유치원,초등학교	222	2.257	0.957	8.136	0.000
	중학교	87	2.310	0.980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2.712	0.989		
	교육청(기관포함)	59	2.831	0.913		

- ㉞ 복합시설이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라는 관점을 묻는 설문에는 교육청(기관포함)이 가장 높은 평균(2.831)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집단이 평균(2.712)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310), 초등학교(유치원포함)(2.2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8〉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12)

문항12.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속학교별	유치원,초등학교	222	2.234	0.956	7.336	0.000
	중학교	87	2.264	0.994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2.621	0.957		
	교육청(기관포함)	59	2.797	0.867		

학교시설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묻는 설문에는 교육청(기관포함)이 가장 높은 평균(2.797)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집단이 평균(2.621)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264), 초등학교(유치원포함)(2.2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9〉 분산분석(소속학교-문항14)

문항14.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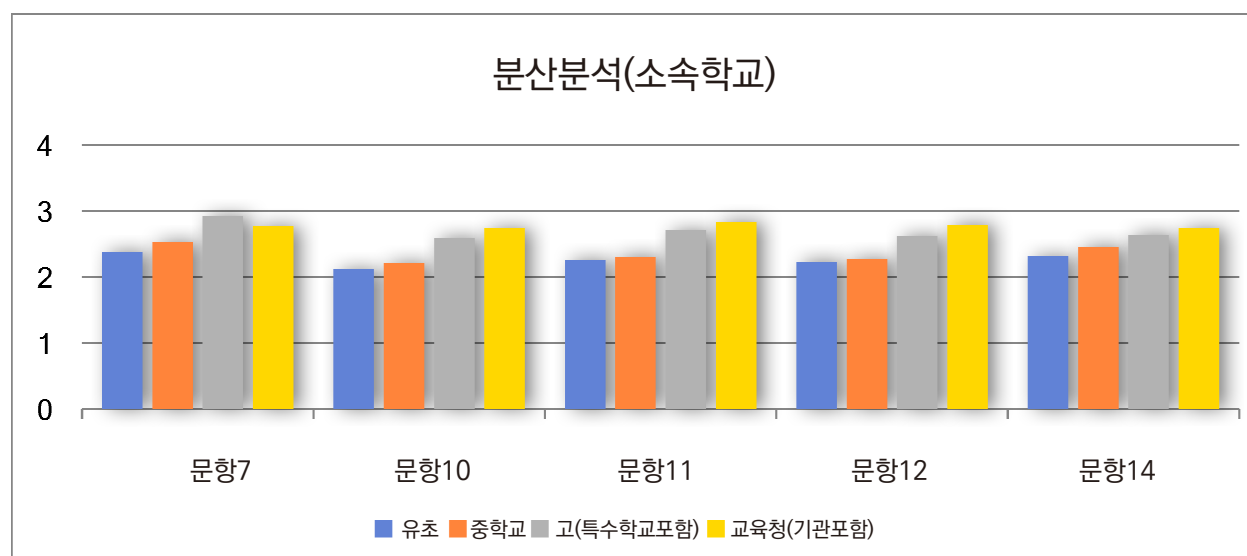
그룹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속학교별	유치원,초등학교	222	2.315	0.902	4.704	0.003
	중학교	87	2.460	0.925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66	2.636	0.922		
	교육청(기관포함)	59	2.746	0.843		

복합시설의 교육과정 융합도를 묻는 설문에는 교육청(기관포함)이 가장 높은 평균(2.746)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집단이 평균(2.636)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460), 초등학교(유치원포함)(2.3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을 소속학교별로 한 분석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 -40〉 분산분석 종합(소속학교)

문항	그룹	소속학교별			
	수준	유·초	중학교	고(특수학교포함)	교육청(기관포함)
지역소멸대응책	문항7	2.374	2.529	2.924	2.780
유휴교실에 따른 필요	문항10	2.117	2.218	2.591	2.746
지역상생정책	문항11	2.257	2.310	2.712	2.831
학교개방정책	문항12	2.234	2.264	2.621	2.797
교육과정활용가능	문항14	2.315	2.460	2.636	2.746



소속학교별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 유·초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V.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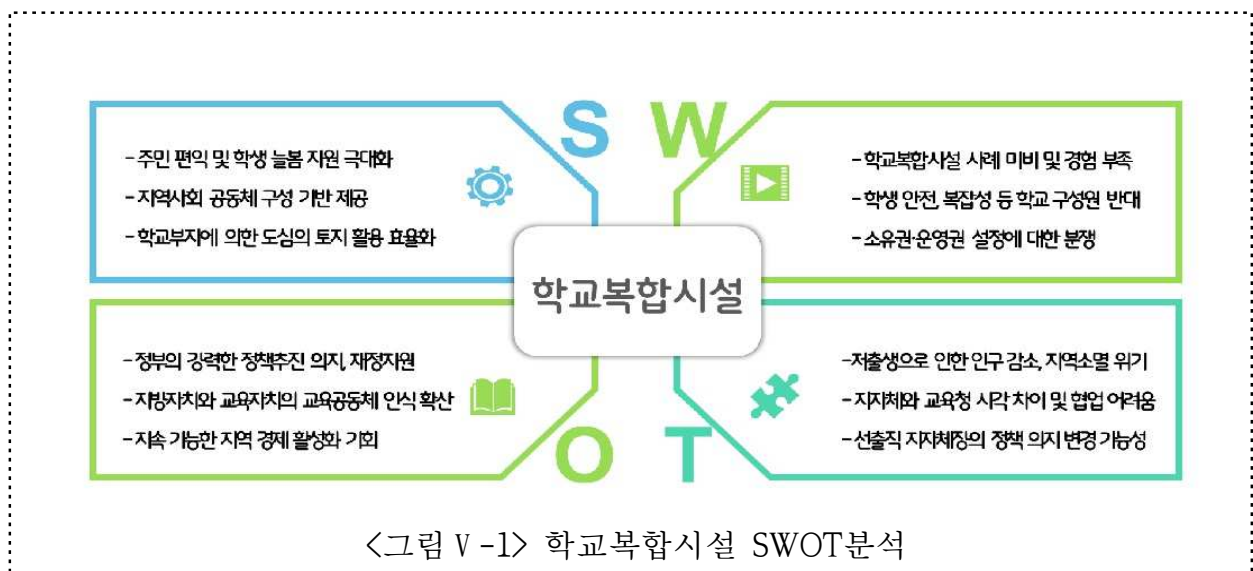
제1절 제언

경상북도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4가지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 그중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혁신하는 교육지원’에 학교복합시설을 2024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 공모를 통해 당선된 학교복합시설의 양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충실히 중점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의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정책 분석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략적인 제언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 내부요인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살펴보면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유희부지가 있다는 점과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점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수행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기반이 부족해 주민의 교육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 등 학교 관련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그 다음으로 외부요인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살펴보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손꼽을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와 교육가치의 교육공동체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위협의 요소로는 인구절벽의 저출생 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정하여 보았다.

〈표 V-1〉 학교복합시설 전략

구분	제언	비고
SO전략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림
ST전략	균형 잡힌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
WO전략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림
WT전략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

1. [SO전략] 교육청-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경상북도교육청은 그 어떤 시·도보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책 의지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타시도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면 학교복합시설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건물이라는 공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 넘어 운영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이 조금은 더 디더라도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활발한 협의를 통한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이 절실한 이유이다.

2. [ST전략] 저출생,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잡힌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2023년 7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보면 5곳이 주차장이며 2곳이 수영장이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2024년에는 보다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이 공모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에서부터 성인들이 활용 가능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균형잡힌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킬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사례가 우수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3. [WO전략] 셉테드(CPTED) 적용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학교 개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시작하고 있다. 능평초등학교의 행정실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는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가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교복합시설에 셉테드를 적용하는 것인데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이라는 셉테드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반영한 디자인 설계를 통해 각종 범죄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세대 셉테드의 확장 개념을 적극 도입해 외부인(지역주민)의 출입으로 인해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교직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학생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안전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성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WT전략] 교직원, 공동체 구성원 인식 제고로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필요도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학교복합시설 외의 다른 방향으로 저출생,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대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미래사회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교직원 인식 제고 등 교육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한 교육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기반이 부족한 경북지역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복합시설에 대한 필요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학교복합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우수사례 삼아 공문서, 보도자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학교복합시설은 정책 초반(2001년)에는 인구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시설 부지를 이용해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다변화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되자 현재는 늘봄학교와 같은 생활 SOC확충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2022년 도 조례 제정, 2023년 교육부 공모 최다 선정, 2024년 학교복합시설 담당 신설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학교복합시설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타시도의 사례 2곳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례 2곳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복합시설 정책 3기에 이른 생활SOC의 관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늘봄학교의 추진, 관(官)주도의 정책추진에서 마을 공동체와 같은 민간인들의 교육참여 활성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의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관련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부정적이다.’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는 대체로 긍정답변이 높았으나 정확한 연혁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는 부정답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융합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연구 가설 2’가 가지는 의의는 학교복합시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필요성을 담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추진 속도보다는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 연구 가설 검증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생·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주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미래교육의 현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닌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갈 때 완전하여 진다.

둘째, 균형 잡힌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사업 추진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큰 두 축을 완성해 가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셋째,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업 추진이 학교복합시설을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CPTED) 적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노력이다. 교직원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학교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인식을 함께 고민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사회 특히 교육환경은 폐쇄적인 사고와 운영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과정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공존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타시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최초 연구 계획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부모들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설계 단계에 있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의 인식조사에 그쳤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달호(2021). 학교시설의 쉼테드에 관한 교사들의 요구분석. 수산해양교육 연구 제33권 제2호
- 김경희(2015).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실태 분석.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재 외 1명(2019). IPA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모영민(2024).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오해진, 이재림(2009).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녹색환경 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획(국문판). 국제미래교육위원회
- 이광호(2022). 초·중·고등학교 내 창의공간 유형 사례 분석. 대진대학교 석사 논문
- 이소민(2019).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공유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 논문
- 이원희(2023). 지방자치단체 학교복합시설 지속적 도입을 위한 운영과 활용 실태에 관한 고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이재림(2020). 학교 유휴시설 활용 생활SOC사업 정책 방향 연구.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 이지완(2020). 학교시설 개방 개선방안. 경상북도교육행정세움연구회 연구보고서
- 정연숙(2008).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논문
- 차주영 외 2명(2009).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홍정아(2024).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연구. 한국교원대 교육 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2019).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복합화 개선방안. 미래교육
환경학회
- 교육부(2023). 2023년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24). 2024년도 학교복합시설 설명회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 ‘경북교육청, 올해 15개교 섹테드 지원’, (2024. 7. 3.), 뉴시스
-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 (2023. 12. 11.), 노컷뉴스
- ‘초고령사회 대비 교육제도 개혁 필요’, (2023. 11. 24.), 한국교육신문

[부록 1] 능평초등학교 복합시설 면담 기록

1. 능평초등학교 면담 개요

- 2024년 8월28일 9시 30분, 경기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의 추천으로 능평초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했고 학교운영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행정실장을 면담함.
- 2024년 개교하면서 복합시설을 구축한 학교로 학교복합시설을 구축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교구성원이 없으므로 경기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의 도움을 받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서면 질의하기로 함.
- 2024년 9월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의 서면 답변을 받음.

2. 능평초등학교 행정실장 면담 녹취록

■ 녹취 개요

- 면담일시: 2024. 8.28 09:50~10:10
- 면담자: 권정훈(세움연구회 부회장), 능평초 행정실장
- 장소: 능평초등학교 운영위원실
- 녹취록 작성 방법: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녹음 앱이 제공하는 텍스트 자동 변환기능을 이용해 녹취록 1차 작성 후 문구 수정

■ 면담 녹취록

권정훈

능평초 학교복합 시설 사업을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요. 누가 최초로 사업하자고 제안을 했던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사업의 시작은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뭐 저 그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교육청 수용 담당팀에서 관여하고 추진을 했으니까 거기가 좀 더 잘 할 거고 학교는 이미 다 지어진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 측면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겠죠.

권정훈

그러면 이 학교를 처음 지을 때 어 같이 만들었다는 건가요?

능평초행정실장

그렇죠? 예산이 아마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의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52대 48 뭐 이 정도로 거의 예산이 부담자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비율은 이제 교육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권정훈

학교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 들어왔는데 그럼 운영위원이고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네요. 학교에서는?

능평초행정실장

복합 시설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죠. 교직원들도 이게 복합시설이라고 하긴 하는데 복합실에 뭔지는 그냥 같이 붙어 있구나 수영장하고 이런 정도로 개념이 됩니다.

권정훈

그러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불편함 같은 거 혹시 있으시던가요?

능평초행정실장

별개로 운영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땅에 같이 졌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많이 있겠죠.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큰 시설의 출입구가 같잖아요. 출입구가 하나인 상태에서, 2개의 기관이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 사고가 상당히 걱정이 되죠. 등하교 때는 주위가 완전히 마비라 공여 지책으로 학원 차량을 학교 주차장까지 올라와서 학생들을 태울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차장마저 여유가 없으면 정말 이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영장에서 등하교 시간에는 그 회원들이 이용 안 하게끔 조금 피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 등교 시간이라든가 하교 시간에는 전부 강의 시간을 제한적으로 좀 피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입구가 한 곳이니깐 상당히 복잡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출입문은 반드시 별도로 내야 될 것 같아요.

권정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수영장하고 또.

능평초행정실장

헬스장 있죠? 거기.

권정훈

수영장 헬스장 두 가지인가요?

능평초행정실장

그 외에 뭐 요가 시설 요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훈

그러면 (학교복합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어 학교에서 하는 건 없고 지자체가 전부.

능평초행정실장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일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장점은 음 우리 학생들이 그 생존 수영하러 가는데 버스를 안 타고 간다는 거 하나 외에는 뭐 그러니까 특별한 장점도 없는 거죠.

권정훈

그럼 교직원들은 이용하는데 비용을 내고 하는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죠. 일반이랑 똑같고 특별히 우대를 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권정훈

그럼 수영장은 회원가입 안 해도?

능평초행정실장

그거는 이제 광주시하고 교육청 간에 이제 학생들 생존시험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니까.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권정훈

수영장도 돈을 주고 이용하는 건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예 생존 수영 지원금으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네요.

권정훈

그러면 관리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할 거는 없겠네요?

능평초행정실장

완전히 별개니까 할 거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기관 자체가 붙어 있는 것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권정훈

건물이 그냥 같이 붙어 있을 뿐.

능평초행정실장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차단이 되어 있어요.

권정훈

아 연결이 안 돼 있네.

능평초행정실장

출입구만 한쪽에 같이 붙어 있는 거지. 통로로 연결돼 있는 것은 하나 없어요. 완전히 가까이 있는 별개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정훈

땅은 그게 학교 것이지만 운영권은 백 프로 시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주민이 많이 오나요? 어떠세요?

능평초행정실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예 이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거든요, 하는데 그거 회원들의 이용료 갖고는 안 되고, 그렇게 예 제가 지금 연간 한 몇십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이번에 그 예산 들으니까 작지는 않죠

권정훈

시에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걸 지원하는 걸 테니까 운영권, 운영비도 거의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고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도 무조건 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

능평초행정실장

정식 명칭이 능평 스포츠 센터거든요. 스포츠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도시관리 공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권정훈

그러면 불편한 거는 등교나 하교할 때 차량하고 이제 학생 차량 안전사고 외에는 다른 안전사고는 걱정할 게 별로 없네요. 이런 복합 시설이 다른 데만들어 진다면 어떻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능평초행정실장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같이 시공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설이 이루어지는 거는 국가 지원 측면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어 하나의 편의적인 게 좋고 장점이죠.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에서 이 정도로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이것밖에 할 게 없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권정훈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능평초행정실장

학교 관리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권정훈

학교 교직원 중에도 여기 센터 활용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능평초행정실장

없어요. 자기 집 근처에서 이용하지. 여기서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권정훈

음 교직원은 어디에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능평초행정실장

주로 성남권이죠 성남권이나 광주 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은 없죠.

권정훈

여기는 광주시에서 약간 변두리인가요?

능평초행정실장

변두리라기보다 성남 쪽에 가까운 광주 중심에서는 성남 쪽으로 가장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남시 경계가 더 가까운 거죠

권정훈

수영장 외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능평초행정실장

에 없어요.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하는 것 외에는 회원 가입을 해서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정훈

혹시 뭐 학생회원은 없는가요?

능평초행정실장

하나도 없어요. 음 초등학생들이 가서 이용할 것은 없고 전부 지역 주민들 그것도 지금 이제 나이들이 있으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요.

권정훈

그럼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가보면 토요일 날은 자유 수영하던데, 여기도 하는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정훈

복합시설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불만이 있나요?

능평초행정실장

같은 출입구니까 그래서 통학로 출입구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권정훈

그런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었나요?

능평초행정실장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가 더 커지고 주장이 여유가 없다면 이제 진짜 하교 때 교통 대란이라는 거죠. 학원차가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인근 도로 완전 마비예요. 엄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죠 학원 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도 학교 안으로 학원차를 들어오게 한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주차장의 여유가 없어지면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죠.

권정훈

개교가 언제 개입니까?

능평초행정실장

작년 23년 3월 1일이죠

권정훈

23년에 개교하기 전에 2022년까지 공사를 했을 텐데 그 담당자가 아직 지원청에 있을까요?

능평초행정실장

현재는 없어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권정훈

등하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이제 왜 그 예측을 못 했냐 뭐 요런 거 한번 지원청에서 담당했던 분에게 따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능평초행정실장

그런데 출입구를 따로 낼 만한 공간이 안 돼요.

권정훈

학교 뒤가 산인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이 자체가 산이었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죠. 그러니까 설계상 출입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죠.

권정훈

학생들은 등교 거리가 가까운가요?

능평초행정실장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권정훈

10분 정도 뭐 먼 거리는 아닌데 요즘 학생들에겐 10분 먼 거리죠.

능평초행정실장

초등학생들한테는 짧은 거리는 아니고 통학로가 그렇게 넓거나 안전하지 못해요. 시청에서 지금 개선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권정훈

골목 자체가 뭐 좁더라고요. 많이 이 학교 생기기 전에는 다른 학교로 전부 갔겠네요.

능평초행정실장

근처 학교가 워낙 과대해서 새로 학교를 세운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실에 들어오니 까 편리한 거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복잡해서 싫어요.

권정훈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별도로 있는 거죠?

능평초행정실장

현실적으로 센터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왜 학교 쪽으로 다 올라와요. 현재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놔두는데 내년부터는 취급을 통제시키려고 그래요. 학교의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출입문은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러면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입문은 반드시 몇 개로 내야지 되는 걸 고려해서 추진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훈

교육부가 최근에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능평초행정실장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모든 게 좋아 보이죠.

권정훈

여기는 돌봄 시설은 없지만 돌봄, 늘봄 얘기하면서 돌봄 센터도 만들어 지자체가 운영하게 하고

능평초행정실장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체육관도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그런 것도 뭐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주민들은 자기 집이 아니고 썩 맛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고 뭐 쓰레기장처럼 버리고 가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권정훈

만약에 주위에 친한 분, 친한 행정실장님이 우리 학교도 그 복합 시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실장님에게 혹시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능평초행정실장

제가 그 지역 주민이라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할 거고 학교 관계자 입장으로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음 지역 주민 입장에서 좋지 학교의 관계

자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권정훈

학부모도 불편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능평초행정실장

네, 자녀들이 등학교 할 때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권정훈

만약에 그런 장애 요소가 없다면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도 별로 좋은 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능평초행정실장

특별히 장점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저희 시설이 있다고 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이 수영하는데 그 관광버스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권정훈

만약에 교직원도 근처 사는 분들이 많다면 그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능평초행정실장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찬성이지만 지역 주민을 떠난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교직원은 정확히 말하면 딱 한 명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당직 기사님 이 지역이 살거든요.

권정훈

학교에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이고 행정실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가요?

능평초행정실장

예. 여기 2년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좋아할 사업이지만 학부모나 교직원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제가 이 학교 관계자 공무원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연간 몇십억씩 운영비 들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약간 고민스러워요.

권정훈

수영장 때문에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 그 물 관리해야 되고

능평초행정실장

30명 정도가 저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만 일곱분 이상 됩니다.

권정훈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능평초행정실장

수십억 운영비 예산과 많은 인력으로 지역 주민의 수영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서면답변

①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최초로 사업신청한 주체는 어디이며, 제안 이유?

→ 능평초 개교를 위한 '(2017.7.) 교육부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의 조건부 부대의견이 있어 추진했던 사항이며, 중앙투자심사 이후 광주시와 복합화시설 추진을 위하여 협의하였음

<중투의견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광주시에 복합시설 설치 여부 제안으로 시작>

② 능평초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방법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에 따라 능평동 일대 주민의 교육여건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복합화시설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였음(2017. 11.~2018. 4.)

③ 능평초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학교복합시설로 인한 어려움?

→ 능평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했기에(학교 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청과 협의 미대상),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경청 의견 보완을 위해 설계가 변경되는 등의 행정 절차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개교가 지연되었음.(2020년→2023년)

→ 현재 개정된 투자심사규칙에 따라 복합화시설의 경우 공동투자심사 대상 (행안부-교육부)이지만, 공동 투자심사의 경우 연 2회만 개최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각종 규제 등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령 및 절차가 복잡함

→ 복합화시설의 경우, 학교시설과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함에 따라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목적에 맞는 취지로 이행하였음에도 향후 각종 감사기관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학교복합시설 설계와 공사 추진 주체 및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운영권자는 어디인지?

→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계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학교시설 설계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학교 준공 후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함에 따라, 현재 소유권 및 운영권자는 광주시

→ 학교와 복합시설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소유권·운영권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협의가 학교와 지자체가 모두 납득할 수준에 도달하도록 수차례 의견을 주고 받는 등 협의하였음.(공문, 대면협의 등)

⑤ 학교복합시설 구축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관계자가 있었는지?(이유와 함께)

→ 학교복합시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과정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이 축소되는 등 이행 조건 준수를 위한 과정이 있었음.

[부록 2]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시설 면담 기록

1. 배곧누리초등학교 면담 개요

● 2024년 8월28일 13시, 배곧누리초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행정실장을 면담함.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한지 3년 이상 기간이 지나 구축과정을 알고 있는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 행정실장을 통해 배곧누리초등학교 시설은 셉테드(CPTED)-범죄예방설계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함. 행정실장의 안내로 배곧누리초등학교 센터장을 만나 면담함.

배곧누리초등학교 센터장은 시간이 없어 당일 면담은 불가능하나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기로 함.

행정실장의 서면 답변을 9월 13일 받았으며 센터장은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으나 바빠서 서면 답변보다 전화가 더 좋겠다고 말해 10월 29일, 전화 면담을 실시함.

2. 배곧누리초등학교 행정실장 서면 답변

■ 질문지

● 셉테드(CPTED)-범죄예방설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셉테드는 CCTV도 있지만 사람이 자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며,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범죄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배곧초등학교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설계로 구축했으므로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나 학교 폭력 등 내부 관계자로 인한 범죄 발생에 대해 학부모나 교직원의 불안감은 다른 학교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교직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셉테드시스템의 특성은 위의 설명으로 보면 범죄와 불안감 감소의 대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라는 긍정적인면을 볼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 및 시설관리등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담장의 높이는 80센티 이상 설치할 수 없고, 자연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개방된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시설관리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높이 80센티 이상으로는 담장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낮은 담장으로 외부인이 쉽게 넘어 다닐수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시설관리도 어렵습니다

2. 개방된 건물 구조로 인해 안전지킴이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 통제가 어렵고, 본교는 천연잔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당직근무자도 없는 주말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잔디 운동장을 허가도 없이 사용하여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교내 청소관리등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지역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교육활동공간이 노출되어 범죄의 위험이 높을뿐 아니라 학교안의 많은 사람들이 통제 없이 활동합니다.

4. 학교복합시설과 양쪽으로 주차시설이 분리되는 되어 있지만, 협소하여 학교쪽 주차공간을

이용하기도 하며, 주차차단 시설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여 학교예산으로 보수하고 비용처리를 합니다.

● 신문기사에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너나들이와 관련해 "복합시설은 시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관리해 관리주체 이원화에 따라 CCTV도 각각 보는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학교와 복합시설에 설치된 CCTV는 한곳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CCTV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학생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CCTV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 학교복합시설(너나들이)의 학교 교과과정 연계 및 예체능·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는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배곧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너나들이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정실 직원이 있나요?

답변: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배곧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너나들이센터)에 대한 행정실 직원의 인식은 대체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학교안 출입을 함으로서 외부인 통제를 할수 없어 학생들은 안전하지 않는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 행정실장으로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위에 잘 아는 행정실장의 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학교복합시설과 학교를 분리하여 담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존재함으로서 셉티드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학교안 외부인 출입통제가 어렵고,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하며, 학생들의 안전으로 부터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활동 할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3. 배곧너나들이 센터장 녹취록

■ 녹취 개요

● 면담일시: 2024. 10.29 09:40~09:55

- 면담자: 권정훈(세움연구회 부회장), 배곧너나들이 센터장
 - * 배곧누리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이름은 배곧너나들이센터이며 센터장과 직원이 있음.
- 면담방법: 전화
- 녹취록 작성 방법: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녹음 앱이 제공하는 텍스트 자동 변환기능을 이용해 녹취록 1차 작성 후 문구 수정

■ 면담 녹취록

권정훈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네 네.

권정훈

배곧누리초등학교에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한 이유는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아신다면?

센터장

저희가 신도시를 계획할 때 기획하고 배곧누리초등학교가 설립될 때 설립 단계에서부터 교육 부랑 심의가 돼가지고 학교 복합시설을 설립하는 전제 조건으로 교육청에서는 토지를 내어주고 시흥시에서는 배곧너나들이 센터를 건축을 한 거예요.

권정훈

혹시 복합시설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 주민자치회 위원도 있을 테고 여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나요?

센터장

두 차례 주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정훈

구축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나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은 있었다던가요?

센터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들어온 지 일 년밖에 안돼서 세세한 건 잘 몰라요.

권정훈

배곧너나들이센터에는 운영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센터장

말 그대로 이제 배곧너나들이센터의 평생교육, 운용에 대한 전반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운영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 결정 계획이나 결정까지는 아니고 추진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권정훈

협의회에 참여를 누가 하는가요?

센터장

참여는 이제 지역 주민, 학교 주위가 아파트 세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파트 3개

의 단지 대표 회장님들, 학교장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부장님, 주민자치회장, 저희 주무부서 과장님 그리고 제가 간사로 있고요.

권정훈

그래요. 혹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나요?

센터장

운영협의회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거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센터 사용료라든지 지역주민 이용 시간대, 센터 이용 방향 뭐 이런 것과 저희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판단해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정훈

마을공동체나 마을 교육 공동체 이제 활동가 발굴, 양성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는데...

센터장

그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협력 프로그램, 주민주도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독서 진흥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마을 강사를 양성해서 그 마을 강사들이 이수를 마치면 프로그램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강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마을 강사 양성으로 하는 양성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권정훈

네, 배곧너나들이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주민자치회, (찾아)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인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곳과 어떤 연계 같은 게 있나요?

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같이 한 것은 전전년도에 한 번 있긴 했는데요. 업무협의에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자문 정도는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게 서로 협업하는 관계지 직접적으로 같이 뭔가를 운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인 제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센터장으로서 지역 기관 대표로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주민 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협업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권정훈

예,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센터장

주민 참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주민 축제 기획단이 있어서 올해 2024년도에 두 번의 축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작은 축제이고 한 번은 마을 축제로 해서 저희가 일 년에 가장 큰 행사를 진행합니다.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주민기획단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통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 할 때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번 축제 때도 아파트 3단지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있었고 배곧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들 다 주민들이죠.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부스 운영 등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권정훈

교육과정 연계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예체능 창의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센터장

예체능 창의 체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마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인재 양성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저희가 연말, 12월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와 업무 회의를 통해서 학년별로 교육 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박람회도 하고요.

(전년도 말에) 병설유치원과 교육 박람회를 주제를 선정해서 다음 해에 그걸 추진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학교 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학년별로 어떤 과정을 정해서 보통 12월에서 학기가 시작한 3월 전에 다 협의가 되고, 다음 년도 추진이 돼요.

권정훈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센터장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학생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권정훈

학부모에 대해선 조사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센터장

네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자체를 명칭은 알아도 그 교육 과정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요,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받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는 거의 90% 이상 나오는 편입니다.

권정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교직원도 참여하는 분이 있나요?

센터장

저희가 따로 학교 협력으로 해서 교직원 힐링로그그램으로 요번에도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교직원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리스타 양성 과정 같은 것을 매년은 못했고요, 5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

습니다.

권정훈

그렇군요. 그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런 일도 있나요?

센터장

그런 건 없어요. 학교 운영 시간은 2층 전용 통로를 이용해요. 그 통로를 선생님의 인솔하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만 오픈하고 바깥으로 아예 나가질 않거든요.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1층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안전사고나 이거는 뭐 거의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권정훈

그럼 혹시 뭐 운영하면서 다른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센터장

특별한 고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와의 협력인데, 지금 교사진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이 모두 배곧너나들이센터에 우호적이긴 한데요. 저희는 5년이 되어 좀 안정권에 들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별 문제가 없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곳에서는 학교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처음에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사정이) 변할 수도 있으니 어떤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실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권정훈

그래요. 그러면, 새롭게 학교 복합 시설을 구축하는 곳이 있다면 학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운영에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

저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저처럼 들어간다든지 해서, 학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학교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 연계를 할 때는 교사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정훈

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신의 한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센터장

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학부모회에 저희가 대관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항상 가장 중요한 분은 학부모님들이 곧 주민이시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었을 때 학부모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제 같은 데는 항상 학부모회에서 나와서 부스 운영 등 참여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권정훈

예 다양하게 학부모회와 소통하고 학교와 소통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센터장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정훈

예, 긴 시간 좋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부록 3] 울진고등학교 복합시설 면담 기록

1. 면담 일시 및 면담자 개요

● 경상북도교육청

- 면담일시: 2024. 8. 26.(월) 11:00~11:30

● 울진고등학교

- 면담일시: 2024. 8. 26.(월) 15:20~16:30

- 면담자: 울진고등학교 행정실장

●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 면담일시: 2024. 8. 26.(월) 17:00~18:00

- 면담자: 행정지원담당, 재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2. 면담 결과 종합 정리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누가 최초로 사업 신청을 제안했는지, 사업 제안 이유와 함께 말씀 해 주세요.(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울진고등학교 행정실장 답변 종합 정리)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과 학교에서 공유 가능한 교육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사업 추진함.

- 울진군은 울진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군청 공유지를 활용한 가칭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에 직접 신청함.

- 경북교육청에서 울진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는 울진군의 사업 계획을 인지하였고, 이후 도교육청 주관으로 울진군, 울진교육지원청이 사업 관련 협의를 함. 이 자리에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용지나 폐교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울진군에 설명하였고, 울진군과 교육지원청은 부지 물색 결과 울진고등학교내 부지를 최종 신청 용지로 선정함.

- 이 과정에서 울진군 사업추진 부서가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총무과 평생교육팀'으로 변경됨. 수소국가단지 교육특구와는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 가칭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개요

-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 면 적: 부지 2,500m², 건축연면적 4,400m²
- 사업비: 200억원 정도
- 주요시설(안)

층 별	구 분	실수	면적(m ²)	비 고
지하	보존서고	1	200	
	기계실	1	200	
1층	어린이도서관	1	600	
	거점형돌봄센터	1	400	
2층	종합자료실	1	700	
	디지털자료실	1	200	
	북카페	1	100	휴게실 포함
3층	키즈클래스	4	400	
	직업체험관	3	450	
	열람실	1	150	
4층	소강당	1	850	계단식
	사무실	1	150	
합 계			4,400	

※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을 확장 이전함. 현 도서관 건물을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 교육지원청 소속 각종 센터 사무실로 활용.

- 가칭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예정 부지



○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현재 위치



●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신청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울진고 행정실장)

- 울진교육지원청 재정 및 시설담당이 학교 방문하여 학교복합시설사업에 울진교육청도서관 이전사업을 포함할 예정이니 울진고등학교 부지 사용을 요청하며 사업계획을 설명함.
- 울진군청 사업부서(수소국가산업추진단) 담당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복합시설사업계획 설명함
- 학교운영위원 및 전체 교직원 회의 시 학교복합시설 사업 설명.(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음)
- 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부지사용 동의 (2024.6.21.)
- 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선정 (2024.8.8.). 도교육청에서 공문 발송하여 인지함.

● 학교 구성원(일반직, 교원, 학부모 등)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나 우려를 했나요? (울진고 행정실장)

- 울진고등학교는 단순히 부지 제공만 하면 된다고 하여 큰 반대나 우려가 없었음.
- 특히 건립예정지가 각종 잡목이 우거져 있고 관리가 안돼 학교 입장에서는 오히려 건축물이 들어서게 미관 및 관리상 더 좋다고 생각함.
- 또한 학교와 건립예정지 진출입로가 완전히 별개인데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 건립후에도 외부인이 학교로 출입할 가능성이 없음.

●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부모 등)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나 우려를 했나요?(울진고 행정실장) 없음

-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사항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울진고 행정실장)
 - 학교에서는 4층 계단식 시청각실 신설을 요청했고, 이 실의 사용에 대해 우선권을 요청함.
 - 학교에서 건축물로 가는 좁은 문을 신설 요청함.
- 학생 동선과 일반인의 동선은 분리기 되었는지 분리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분리되었고 분리되지 않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울진고 행정실장)
 - 학생 동선과 일반인의 동선이 확실히 분리되어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음.
-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울진고 행정실장)
 - 울진고 입장에서는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도서관 및 계단식 시청각실 사용 등의 이점이 있음.
 - 소유권, 관리운영비 등의 문제는 울진고와 관계가 없음. 울진교육지원청과 울진군의 소관임.
- 교직원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얼마나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울진고 행정실장)
 - 가중된 업무가 없음
- 설계의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되었나요?(울진고 행정실장)
 - 계단식 시청각실 및 진입 통로 신설 요청
-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누구이며 추정하는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울진고 행정실장)
 -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거점형 돌봄센터 등의 시설물이 있어 1일 수백명의 이용이 예상됨. 특히 거점형 돌봄센터가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면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됨.
- 시설물의 소유권과 운영권,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울진고 행정실장)
 - 현재 사업은 확정됐지만 건축비 재원 배분, 건축물 소유권, 운영 주체에 대해 경북교육청,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군의 협약이나 공문이 없음.
 - 울진교육지원청은 건축물 소유권이 당연히 교육감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담당자는 울진군이 최초 사업계획서에 국비 50% 군비50%를 확보하겠다고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함.(울진군에서 국비 제외 60%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짐.)
 - 따라서 이후 운영 주체와 관리 수선비도 확정된 것이 없음. 기관간 갈등 예상.
 - 9월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후 실행계획에 대해 협의를 할 계획임.

3. 가칭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1차 답변서 이후 상황

□ 사업 확정 후 관련 기관 1차 협의

- 2024. 9. 10.(화) 14시
-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 참석기관: 울진군, 본청 시설과,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고등학교, 울진도서관

□ 각 기관 입장

1. 울진군

- 1) 총사업비 200억 중 10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애초 제출 계획서에는 나머지 100억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60억부담으로 입장 변경.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이 이전하는 것이니 40억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2) 현 울진고등학교 부지가 아니라 울진과학체험관(울진고에서 도보 5분 거리)인근 민간 토지를 매입해서 울진고등학교 기존 부지와 교환하여 학교용지 지정 후 사업 추진 요청.
- 3) 위 조건이 아닐 경우 울진군의회의회에서 사업 및 예산 승인 받기 어렵다고 주장.
- 4) 건물 소유권 및 관리권은 준공 즉시 교육감으로 이관한다고 함.

2. 본청 시설과

- 교육부에 울진군의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해 질의 하고 그 답변을 갖고 2차 회의에 참석하겠음.

3. 울진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 교육감과 울진군이 합의해야 할 문제임.

4. 사업계획서 변경 시 울진고는 학교복합시설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실익이 없음. 기존 사업 계획이 아니면 사업 추진 거부함.

□ 결론

- 협의회 참석자 인원 및 직급, 주관 기관 및 간사 선임 등 결정된 내용 없음.

[부록 4]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시설 면담 기록

1. 면담 개요

- 2024년 9월4일, 경상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시설 구축 과정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함. 경북도교육청이 주도해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질의하기로 함.
- 경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관계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2024년 10월 10일 서면 답변서를 받음.

2.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서면 답변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최초로 사업 신청을 제안한 주체는 어디인지, 사업 제안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복합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며, 주요 제안 이유로는 해당 시·군의 유휴 부지가 없어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음
-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정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영장 시설 건립 요구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생존수영수업에 활용한다는 방안과 취지가 부합하여 채택되었음.
 - 교육청, 경산시청, 마을대표 참석하에 회의를 진행했으며, 대략적인 사업 구상이 나온 이후에는 학교 사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학교복합시설 기획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관계자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복합시설 기획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경산시청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는지 포함)
 - 실무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나,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음.
 - 또한 교육청-시청 간에도 한정된 예산에서 각자 필요한 시설을 채워야하는 상황이라 절충하는 과정이 소요되었음.
- 학교복합시설 설계와 공사의 추진 주체,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자, 운영권자는 각각 어디인가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역 여건 등 각 사업마다 다를것이나,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져가고있음.
-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 생존수영교실, 방과후 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봄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예정임

●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인근에 주택단지가 없고 상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복합시설에 포함되는 놀봄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놀봄센터의 기본기능 수행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인근 진량공단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부록 5] 설문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공모연구 ‘학교복합시설사업’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학교복합시설연구팀입니다.

본 설문은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공모 연구 주제로 선정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교육 관련자 인식연구’를 위한 조사지입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의 4대 정책방향 중 ‘혁신하는 교육지원’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형 학교복합시설사업의 방향 설정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학교복합시설연구팀 올림

설문지

< I. 일반 현황 >

-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 ☐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5년미만 ②5년이상~10년미만 ③10년이상~20년미만 ④20년이상
- ☐ 귀하의 직책(직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교장, 교감 ②교사 ③일반직
- ☐ 귀하의 현 소속 학교는 어디입니까?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특수포함) ④교육청(기관포함)

< II. 설문 문항 >

학교복합시설의 이해도(5~8)

5.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6. 들어 보셨다면(③,④)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①보도자료 등 뉴스 ②정책설명회 ③공문서 ④기타()
7.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소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8.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모르겠다

주석: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함께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규시간: 학교, 정규시간 후: 지역주민)

학교복합시설의 필요도(9~13)

9. 우리학교는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이다.

①그렇지 않다 ②그렇다

10.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유희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1.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2.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3.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학교교육과정 융합도(14~16)

14.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5.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 가능한 복합화 시설은 무엇인가?

- ①융합교육과정(메이커스페이스-AI, 로봇, 자동차 등)
- ②기술공간(3차원 제작공간, 체험공간, 프린터공간)
- ③경험공간(다목적실, 퍼포먼스룸)
- ④안전교육 공간(안전체험관, 수영장, 다목적홀)
- ⑤스포츠활성화 공간(다목적공간, 수영장, 체육관)
- ⑥청소년 상담 및 교육공간(진로직업 상담교육실)
- ⑦기타()

16. 위 15번 문항 답변 외에 교육과정 연계 가능 복합화 시설이 있다면?

경상북도교육행정세움연구회 명단

2024. 10. 28. 현재

순	직책	지역	소속	직급	성명	회원구분
1	회장	영천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보건5급	김태균	연구회원
2	고문	고령	고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5급	박두익	연구회원
3	고문	포항	경북과학고등학교	행정5급	정승표	연구회원
4	부회장	경산	신상중학교	행정6급	권정훈	연구회원
5	연구국장	안동	영남초등학교	행정6급	심동섭	연구회원
6	사무국장	예천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7급	이정경	연구회원
7	회원	김천	김천여자중학교	행정7급	강선화	연구회원
8	회원	영천	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7급	강소영	연구회원
9	회원	경주	서라벌초등학교	행정7급	금영원	연구회원
10	회원	안동	풍천중학교	행정5급	김성순	연구회원
11	회원	구미	경북외국어고등학교	행정6급	김태선	연구회원
12	회원	예천	예천여자고등학교	행정7급	박정아	연구회원
13	회원	포항	초곡초등학교	행정7급	성현주	연구회원
14	회원	본청	도교육청 재무과	행정5급	신동열	연구회원
15	회원	예천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7급	안미라	연구회원
16	회원	포항	초곡초등학교	행정5급	엄갑영	연구회원
17	회원	포항	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행정7급	이권능	연구회원
18	회원	의성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6급	이남순	연구회원
19	회원	김천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행정7급	이지완	연구회원
20	회원	울진	평해중학교	행정7급	이필홍	연구회원
21	회원	영천	영천고등학교	행정6급	임유정	연구회원
22	회원	포항	문덕초등학교	행정8급	정임순	연구회원
23	회원	울진	죽변중학교	행정6급	정창수	연구회원
24	회원	구미	북삼중학교	행정6급	최장미	연구회원
25	회원	경주	경희학교	행정6급	하복태	연구회원
26	회원	영천	영천여자고등학교	행정7급	박정현	연구회원
27	회원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행정5급	권이현	연구회원
28	회원	구미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행정7급	조재영	연구회원
29	회원	구미	도산유치원	행정7급	이현숙	후원회원
30	회원	경주	감포초등학교	행정7급	금영희	후원회원
31	회원	상주	상주도서관	행정6급	권명숙	후원회원